



참여 | 협력 | 영광

서울대 총동창신문

개학 1895년
통합개교 1946년
창간 1976년 4월 24일

www.snua.or.kr

[월간 제547호] 2023년 10월 15일

04~05 전문가 좌담회
후쿠시마 원전 방출수 위험한가



06 이주호 사회부총리 특강
AI기반 디지털교과서 도입해 맞춤형 교육



07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인터뷰
기울어진 언론 지형 바로잡겠다



13 함운경 군산 네모선장 대표
비싸서 못 먹는 민어 푸짐하게 즐길 수 있어요

울긋불긋 2000여 동문... 흠뻑 큰 홈커밍데이



10월 15일 모교 관악캠퍼스 풍산마당에서 2000여 동문 가족이 모인 가운데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은 모교 응원단의 힘찬 안무에 박수 갈채를 보내는 동문들 모습. 이어서 학생 동아리의 춤·노래, 교수합창단, 동문합창단의 공연이 펼쳐졌다.

동문·재학생·교수 한자리에 버들골·풍산마당서 한나절

2000여 동문이 가족들 손을 잡고 집 같은 학교로 돌아왔다. 동창회와 모교, 재학생 후배들은 푹푹 문쳐 이들을 따 뜻이 환대했다. 10월 15일 모교 관악캠퍼스 버들골과 풍산마당에서 열린 본회 홈커밍데이는 동문들과 모교, 재학생이 한데 어울린 서울대인의 축제가 됐다.

주말의 빈 캠퍼스에 웅기웅기 동문들이 모이던 홈커밍데이 풍경이 이번 해엔 사뭇 달랐다. 재학생들이 대거 참여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재학생 100여 명이 홈커밍데이에 손님으로 방문해 흥을 돋웠다면, 이번에는 행사 일정의 일부분을 책임지고 동문 선배들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를 꾸렸다.

총학생회 임원 10여 명은 접수처에서 가장 먼저 동문들을 맞이했고, 학생회 산하 축제 전담 기구 '축제하는 사람들'

과 동아리들은 버들골에 부스를 차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벌였다. 공연 예술 동아리가 춤과 랩, 기타 연주 등을 준비하고 재학생 홍보대사 '사:인'이 행사 MC를 맡았다. 선배들의 홈커밍데이에 후배들이 놀러온 건지, 후배들의 축제에 선배들이 놀러온 건지 얼핏 구분되지 않을 정도였다. 조재현(자유전공 20입) 총학생회장은 "이번 홈커밍데이는 재학생과 동문들이 함께 기획하고 준비한 최초의 행사"라며 "선배님들께서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보시고, 흐뭇한 마음 느끼실 수 있게 오랜 기간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모교도 손님맞이에 전심을 다했다. 일요일엔 쉬던 미술관, 박물관, 규장각 등을 개방하고 해설과 투어 프로그램까지 진행했다. 메인 코너인 홈커밍데이 음악회에는 동문합창단뿐만 아니라 모교 재학생합창단, 교수합창단과 음대 SNU 브라스밴드, 중창단이 출연해 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인 공연을 펼쳤다.

다양한 세대가 모여 마치 서울대의 역사를 펼쳐놓은 듯한 버들골엔 반가운 손님도 찾아왔다. 미주동창회에서 이상강(의학70-79) 미주동창회장과 황효숙(가정65-69) 차기 회장, 이진구(임학60-64) 전 회장을 비롯해 동문 63명이 함께했다. 모교를 방문한 김에 이진구 전 회장은 100만원을 동창회에 기부했고, 서중민(기계공학64-72) 전 필라델피아 지부 회장은 1만 달러를 모교 발전재단에 쾌척했다. >>2면에 계속

관악춘추

자하연(紫霞淵) 단상



이우탁
동양사84-88
연합뉴스 선임기자
본지 논설위원

우연히 페이스북을 보다가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다. 입학 40주년 홈커밍데이를 맞아 예전 과사무실이 있던 5동 근처에서 단체 사진을 찍은 한 해 선배들의 모습이였다. 몇 장의 사진을 더 올려놓았는데, 인문대 1, 2동 옆에 있는 자하연에서 찍은 '우리 사진'도 있었다. 친절하게도 어디서 찾았는지 학창시절 찍은 사진도 몇 장 올려놓았다.

한동안 과거의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들여다 보며 40년의 세월이 빚어낸 선배들의 변화를 실감했다. 묘한 여운이 깃들었다. 80년대 캠퍼스는 시대상황으로 인해 지독한 사연들이 많았다. 사진을 올린 선배나 이를 지켜보는 사람들

이나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 자하연 사진을 보면서 상념에 젖어들었다. 그때 자하연은 우리들의 안식처였다. 최루탄이 난무하던 아크로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우리들은 해가 질 무렵 조용히 자하연을 찾곤 했다. '자주빛 노을이 내리는 연못'이라는 뜻을 지닌 자하연(紫霞淵) 가에 멍하니 앉아 수면위를 고요히 응시하곤 했다.

지난 봄 지인의 아들 결혼식이 있어 관악을 찾은 김에 자하연에 들렀더니 예전에 있던 오작교가 철거돼 있었다. 연인끼리 다리를 건너면 1년 안에 헤어진다는 믿거나 말거나 속설이 있던 오작교였는데, 오작교에서도 많은 추억이 있었다. 그때의 일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요즘 후배들도 자하연을 자주 찾을 것이다. 관악 캠퍼스의 포토존으로 유명하다고 대학신문에서 소개한 기사를 본 적도 있는데, 세월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추억들을 쌓길 바란다. 문득 얼마 전 동창회장님이 식사 자리에서 제

밧게 한 얘기가 떠올랐다. 올봄 신입생 입학식에서 축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서 관악에 들어왔는데, 이제부터는 주어진 시간의 3분의 1만 공부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동아리 활동도 하면서 멋지고 훌륭한 친구들 많이 사귀고, 또 나머지 3분의 1은 이성을 사귀어보라'는 내용이었다. 40년 전 우리들도 그렇게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학원에 다니는 큰딸이 요즘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모양이다. 짐짓 모른 채 하고 있지만 얼굴에 드리운 수심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기회가 되면 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주어진 시간의 3분의 1만 고민하고 나머지 시간은 친구들과 즐겁게, 의미있게 놀고 다양한 경험을 하라고. 어느덧 가을의 정취가 완연해졌다. 마침 10월 28일 역사학부 통합을 기념해 동문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는 홈커밍데이를 한다는 연락이 왔다. 딸과 함께 모처럼 자하연에 한번 들려야겠다.

이범직·강종표·이용철 기부 동참

본회는 이번 2학기에 734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 20억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장학사업이 가능했던 데는 꾸준히 기부에 참여한 동문들의 성원이 뒷받침됐다. 9월 7일 이범직(역사교육65졸) 동문이 100만원을 기부했다. 기존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기부, 1000만원의 장학금을 조성한 동문이다. 강종표(외교76-83) 동문도 기존에 기부한 400만원에 이어 추가로 100만원을 기부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기부하며 차근차근 목표액수의 장학금을 조성하는 동문들도 있다. 9월 말 현재 동문 49명이 약정기부 방식으로 후배들에게 줄 장학금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 중 12명은 무기한 기부를 약정했다. 9월에는 이용철(농화학67-76) 동문이 월 10만원씩 100회에 걸쳐 1000만원을 조성하는 기부 여정을 시작했다. 신철희(인문대 92-96) 동문은 600만원 조성을 목표로 월 1만원씩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별지부록 : 장학금 기부 참여 신청서



본회 김종섭 회장, 이희범 명예회장, 김인규 수석부회장, 모교 유희림 총장, 간호대동창회 허영 회장 등 본회 임원 및 모교 보직교수들이 '동문·재학생·모교가 함께하면 못 해낼 것이 없다'는 조재현 총학생회장의 인사말에 호응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미술관·박물관·규장각 등 특별 개방



1. 모교 미식축구부가 경기복을 갖춰 입고 나와 최근 서울 추계대회 우승 소식을 동문들에게 전했다. 2. 공식 행사 오프닝을 장식한 샌드페블즈의 공연 모습. '나 어떡해', '젊은 그대' 등을 열창했다. 3. 동문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별', '코스모스를 노래함' 등의 노래를 불러 동문들의 박수를 받았다. 4. 재학생 합창단이 '산촌' 등의 곡을 선보였다.



스트릿댄스 동아리 H.I.S의 춤 공연.

캠퍼스 투어·음악회 풍성 응원단 등 후배 공연에 환호 "젊은 기운 듬뿍 받았다"

"1977년 아직 황량한 관악캠퍼스에 우리 학생들이 직접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디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오늘 캠퍼스에 나무가 무성한 걸 보니 뿌듯하네요." (이종근 기계공학72-78)

10월 15일 열린 본회 홈커밍데이의 첫 순서는 많이 달라진 모교와 친해지는 것이었다. 오전 11시 정문부터 미술관·박물관·규장각·자하연·중앙도서관·천체투영관을 거치는 코스로 캠퍼스 자유 탐방이 시작됐다. 1000여 명이 방문한 규장각을 비롯해 미술관에 240명, 박물관에 251명, 천체투영관에 187명, 중앙도서관에 305명이 다녀갔다.

조진영 사서가 안내한 중앙도서관 투어에서 동문들은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방해될까 발소리를 죽이며 열람실과 옥상정원 등을 둘러봤다. 이종근 동문

부부는 "모든 부분에 의미가 있고, 특히 도서관 구관과 신관이 조화를 이룬 부분이 멋있었다. 도서관이 잘 돼 있어서 서울대 다니면서 공부 못 하면 안 되겠다"며 미소지었다. 자연대(28동) 내 천체투영관에선 물리천문학부 재학생이 천체 영상을 상영하고 해설했다. 관람 후 권 모(농학74-78) 동문은 "'스트리트우먼 파이터'를 좋아하는 손주에게 앞의 분야를 넓혀주고 싶어 데려왔다. 아기가 새로운 호기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캠퍼스 탐방의 최종 목적지인 버들골에선 본회가 방석과 떡, 물, 화장품 세트 등을 에코백에 담아 모든 참가자에게 배부했다. '미동', '영상', 'AAA', '씨알' 등 재학생 동아리들은 부스를 차리고 동문들에게 참여를 권했다. 사진동아리 '영상'에서 가족8명이 플라로이드 사진을 찍은 신희창(지리69-76) 동문은 "아들(신백규 사회복지99-08)이 어릴 때부터 홈커밍데이에 데리고 왔는데, 아들도 동문이 되어 이제 손주들까지 삼대가 함께 온다. 마침 10월 20일이 내 생일이어서 매년 홈커밍데이에서 생일파티를 겸

한다"고 말했다. 풍산마당에선 스트리트댄스동아리 'H.I.S', 흑인음악동아리 '바운스팩토리', '기타동동' 등 공연에 술 동아리의 공연이 이어졌다. 지난해 본지와 인터뷰에서 "선배님들과 함께 할 날을 기다린다"던 서울대 응원단도 처음 동문들 앞에 섰다. 동문들은 '우리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신기해 하면서도 응원단장의 유도에 따라 힘껏 '청춘서울'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호응했다.

이어 시작된 공식행사 오프닝에서 농생대 밴드 '샌드페블즈'가 풍산마당을 뜨겁게 달궜다. 4대 보컬인 이우철(임산가공74-79) 동문을 비롯해 70년대 학번 동문과 90년대 학번 농생대 교수, 박사과정 및 22학번 재학생까지 세대를 초월한 멤버 구성이었다. 대표곡 '나 어떡해'를 부를 때는 많은 동문이 후렴구 '나 어떡해'를 목놓아 외치며 장관을 이뤘다. 객석에 있던 김종섭 회장과 각 단과대 동창회장 등 동창회 임원, ㄹ

발전재단이 협찬한 솜사탕을 들고 좋아하는 동문 자녀 모습 ▶





본회 홈커밍데이에서 SNU 브라스밴드가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다. 특히 앙코르곡 '사랑으로'를 교수합창단, 동문합창단과 함께 들려줄 땐 관중석의 동문들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 노래에 화답했다. 이날 공연은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계속됐다.

샌드페블즈 '나 어떡해' 부를 땐 모두가 떼창

유홍림 총장, 보직 교수들도 흥을 감출 수 없는 모습이었다. 김종섭 회장은 “후배들의 활동에 젊은 기운을 듬뿍 받고 간다”며 풍성한 행사를 만들도록 도와준 재학생들과 유홍림 총장, 교수진에게 박수를 부탁했다. 유홍림 총장은 “1950년대 학번 대선배님부터 2023학번 신입생까지 같이 하는 이 자리는 지금 서울대가 지향하는 모습”이라며 “세대를 넘어 모두의 열망이 모이는 힘의 결집이 위대한 공동체를 만든다”고 화답했다.



디지털 피아노에 당첨된 한동환 동문(왼쪽)

조재현 총학생회장은 “총동창회장님께선 항상 학교와 동문, 재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대를 강조하며 함께 하면 못 해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지난 축제도 총동창회와 동문 선배님들의 지원 덕분에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됐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본회는 9월 모교 예술주

간 중 뽑힌 우수예술동아리들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최근 서울 추계대회에서 우수한 미식축구부가 깜짝 등장해 큰 환호를 받기도 했다. 금관악기를 대편성한 SNU 브라스밴드의 화려한 연주는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행사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해가 저물며 공기가 쌀쌀해졌지만 지휘를 맡은 성재창(기약97-03) 교수와 재학생 단원들은 “평소 금관악기 밴드의 연주를 접하실 기회가 드물

를 따라부르며 대미를 장식했다. 최승욱(지구과학교육82-86)·김영선(국어교육87-91) 동문 부부는 “연예인이 출연하고 사회 보는 것보다 올해 같은 방식이 더 의미 있는 것 같다. 서울대 후배, 동문들이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잘하는 걸 알게 됐다. 다음부터 응원단에는 선배들이 더 크게 호응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문들이 협찬한 푸짐한 경품을 행운권 추첨으로 나눈 가운데, 김종섭 회장이 협찬한 디지털 피아노는 한동환(의학79-85) 동문이 당첨됐다. 또 현장에서 변주선 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동문의 기부로 사회공헌기금 124만5000원이 모였다.



1. 미주동창회 동문들이 오랜만에 귀국해 모교를 찾았다. 본회 홈커밍데이에 참석해 관악캠퍼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문에서 사진도 찍었다. 2. 버들골에 설치된 파라솔과 다양한 이벤트존. 3. 미술관 전시작품의 해설을 듣고 있는 동문들.



4



5



6



7



8

홈커밍데이 협찬 감사합니다.

*협찬자 명단 17면 참조

김종섭(사회사업66-70 회장) 스펙코-삼익악기그룹 회장 디지털피아노 1대, 통기타 3대, 하모니카 100개	유홍림(정치80-84) 모교 총장	야구집퍼 키링 810개
이금기(약학55-59) 일동제약 명예회장		음료수 2500개
이부섭(화학공학56-60) 동진세미켄 회장		100만원
윤세영(행정56-61) SBS미디어그룹 명예회장		100만원
손경식(법학57-61) CJ그룹 회장		CJ상품권(10만원) 5매
변주선(영어교육60-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유방초음파 검진권 2매
김동녕(경제64-68) 한세에스24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에스24상품권(1만원) 100매
최병민(외교71-75) 깨끗한나라 회장		물티슈 2500개
홍석조(법학71-75) BGF 회장		CU편의점 이용권(1만원) 50매
김옥경(식품영양72-76) 델리백 이사		델리백(뉴욕정통베이글) 세트 50개
권혁한(보대원75-77) 제이씨아이 바이오 회장	화장품 1000개, 바디용품 1000개, 건강보조식품 50개	
백승열(농생물79-83) 대원제약 대표이사 부회장		건강보조식품 20개
정현아(농가정82-86) 만포면옥 대표		만포면옥상품권(10만원) 10매
안상규(기계설계85-89) 레벤딕 대표		주스세트 10개
고희정(식품영양87-91) 약촌미기하의원 원장		공진단 3세트, 경육곡 3세트
모교 발전재단		갤럭시탭 2개
모교 병원 강남센터		건강검진권 1매

“방출수 한국 영해 도달 할 땐 10만분의 1 이하로 희석”

후쿠시마 원전 방출수 좌담회

본회가 9월 18일 호암교수회관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출수에 관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오염수나, 처리수나, 진영에 따라 첨예하게 갈려 명칭에서부터 중립을 지키고자 애쓴 티가 역력했다. 이번 좌담회는 후쿠시마 원전 방출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냉정하게 사실을 직시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좌담회의 좌장은 박군철 모교 공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과학적 전달에 집중해 참석자 선정 맹목적 불안감 잠재우는 계기 되길



박군철
(원자핵공학71-75)
서울대 공대 명예교수
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

폐수 정화해 버리듯 방출수 버리는 것 방출수 방사능농도, 기준치보다 낮아



김기현
(원자핵공학01-07)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부교수
전 세종대 원자력공학과 부교수

한번에 방류해도 한국엔 큰 영향 없어 불필요한 의혹제기, 과학자 할일 아냐



정범진
(원자핵공학83-87)
한국원자력학회 학회장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배출기준 지키면 괜찮다? 매우 도식적 방사능 영향은 한 개체서 끝나지 않아



백도명
(의학75-81)
녹색병원 직업환경성질환 센터장 /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부 초빙의

의학·연구 등 폭넓게 쓰이는 방사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진료 어려워



양승오
(의학75-81)
포항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장 / 대한영상의학회지 및 영문잡지 편집위원

방출수 인한 삼중수소 유입 매우 적어 진영 다툼에 과학자 목소리 묻히는 듯



조양기
(대학원86-88)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전 한국해양학회 회장

▶**박군철 좌장**= 먼저 김기현 모교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방사선 공학자로서 방사선에 대한 설명과 후쿠시마 원전 방출수에 대한 의견을 말씀 후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이 학회의 입장과 IAEA 최종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설명해 달라. 이어서 백도명 모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가 환경학자로서 의견을, 양승오 박사가 방사선의 인체에 대한 영향을 말씀해주시고, 조양기 모교 해양연구소 소장이 후쿠시마 원전 방출수의 우리 해역 도달 예상 시점에 대해 말씀해달라.

▶**김기현**= 가정용수든 산업용수든 물이 필요하면 끌어다 쓰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만큼 정화해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다. 방사성 물질 또한 결국은 원소 주기율표 상에 있는 물질들 중 하나로, 화학적·물리적 방식을 통해 거르고 정화하는 방법은 같다. 또한, 모든 위험도는 섭취량/흡수량에 근거해 평가해야 하며, 방사선에 대해서는 방사선량에 기초해서 위험도를 논해야 한다. 의약품 등 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대 무독성 용량 또는 최소 독성 용량을 규명하고, 충분한 안전 여유도(safety margin)를 확보한 섭취 허용치를 두는 것처럼, 방사선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전 여유도를 확보한 기준치가 있다. 연간 1밀리시버트(mSv)라는 선량한도다. 방사선량은 방사선 노출에 의해 인체가 흡수하는 에너지의 양인데, 1mSv는 흐린 날 야외에서 1초 동안 햇빛을 쬐 때 우리 몸이 태양빛으로 받는 에너지보다 약 100배 작은 양이다.

방사성 물질에 대한 배출은 여기에 다시 20배의 안전 여유도를 확보해 0.05mSv를 기준으로 배출 관리 기준치를 설정해 배출량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규제 기관과 도쿄전력은 방출수를 배출 기준치 대비 30% 수준으로 정화할 계획이며, 배출 전 바닷물을 이용해 400 대 1 이상 비율로 희석할 계획이므로, 계획된 목표치대로 방출이 이뤄질 경우, 후쿠시마 지역 주민들에게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선량은 0.00003mSv 수준으로 충분한 안전 여유도를 확보할 것으로 평가됐다. 얼마 전까지 배출됐던 방출수를 실제 측정 한 결과, 배출 계획 목표의 7분의 1에서 10분의 1 수준이었으니, 그 영향은 더 작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방출수가 해류를 타고 우리나라에 올 땐 다시 10만분의 1 내지 100만분의 1 정도로 희석되고 확산될 것이므로, 이때의 방사선량 예상치는 수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방출수에 존재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은 주로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과 같은 핵반응 생성물들과 삼중수소로 구분되는데,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의 경우, 하수 처리시설이나 정수기 필터와 같이 흡착 및 공침 반응 등을 통한 화학물질 정화계통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정화하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 요즘 널리 알려진 다핵종제거설비, 즉 ALPS가 활성탄 및 이온교환 수지 등을 이용한 화학적 정화계통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이미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오염수 탱크



본회가 9월 18일 개최한 후쿠시마 원전 방출수 전문가 좌담회에 박군철·김기현·정범진·백도명·양승오·조양기 등 전문가들이 참가해 의견을 나눴다.

에 저장돼 있는 전체 방사성 물질의 10배 이상이 바다 및 육지로 유입됐고, 육지로 흘러든 방사성 물질도 기후활동 및 계절변화를 거치며 바다로 흘러 들어갔다. 그보다 앞서 50~60년 전 핵실험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보다 100배 이상 많은 방사성 물질이 지구상에 퍼졌다. 그럼에도 지난 50여년 동안 대부분의 인류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큰 영향 없이 살아왔다.

삼중수소 매년 약 280g 자연 발생

삼중수소의 경우, 화학적 계통으로 정화가 불가능한 것이 문제지만, 후쿠시마 원전 부지에 저장 중인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총량은 2.2g 정도로, 매년 자연적으로 대기 중에서 생성되는 삼중수소의 양 280g에 비해 훨씬 작은 양이다. 대기 중 삼중수소는 비와 함께 지표로 내려오는데, 최근 비 오는 날 우리나라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일본에서 배출 기준 목표로 삼은 1500Bq/L과 비슷한 1200Bq/L 정도임이 확인됐다.

매년 수백 곳에서 해수 방사능을 비롯한 전 국토의 환경 방사능을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공개한다. 10년 전이든 지금이든 그리고 1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방사선 수치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편견을 버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정범진**= 후쿠시마 원전 방출수 이슈는 배출기준의 40분의 1 수준의 매우 낮은 오염 농도의 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게 옳으나 그르나 따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배출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생물학적 영향, 환경적 영향 등을 다 검토해서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수준으로 기준을 정했다는 뜻이다. 이미 계산에 넣었던 생물학적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배출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거나, 알면서도 고려되지 않은 것처럼 인식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다.

방사성 물질 관련한 일개 사업자가 방출수의 여러 영향을 다 고려할 순 없다. 따라서 국가가 배출기준을 정해 이 기준만 충족시키면 다른 환경적 영향은 다 고려되도록 하는 것이다. 후쿠시마산 어류의 방사선 농축계수가 다른 지역 어류의 100배라는 지적도 같은 맥락이다. 허용기준 미만이라면 100배 농축도 의미가 없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방출수에 포함된 방

사성 오염물질의 양은 2011년 원전사고 당시 해양에 방류된 양의 1000분의 1 이하다. 한꺼번에 방류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해역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2011년 사고 때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아무런 처리도 없이 방류됐고 12년이 흘렀지만, 아무 영향도 없지 않은가. 나누어 희석해서 방류하는 건 일본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대로 방류해도 영해에 도달할 때 충분히 희석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6건의 중간보고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의 방출이 적법하다는 게 첫 번째 결론이고, 방류했을 때 후쿠시마 거주민들이 해산물을 먹고 해수욕을 해도 방사선 피폭량이 충분히 낮아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없다는 게 두 번째 결론이다.

다만 IAEA는 안전성을 검증할 뿐 방류 여부는 일본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는 뜻에서 여는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보고서 뒷부분에 ‘디스클레이머(disclaimer)’라고 썼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알지도 못하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언론은 전문가의 확인 없이 이를 받아 써 논란을 확산시켰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면에선 방출수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이 위험하다고 지적하지만, 그 양이 매우 적다는 점은 말하지 않는다. 대세에 영향이 없는 극히 작은 수치상의 오류나 부정확성을 몰고 늘어진다.

최근 겪었던 탈원전 정책 때처럼 정치적인 입장이, 이번 이슈의 경우엔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까지 개입해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 같다. 과학의 문제가 정치의 문제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연관 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한 이러한 의혹들이 검증되지 않은 채 유포되고 이것이 대중에게 후쿠시마 원전 방출수가 위험하다는 증거처럼 받아들여져 정부에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학자로서 경악스럽다.

지식인은 그 지식을 통해 사람들이 편하게 살도록 해줘야 한다.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해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지식인이 할 일이 아니다.

▶**백도명**= 방사선에 의한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게 제 전공이다. 원전 주변의 주민부터 반도체 회사의 직원까지 방사선과 발암물질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폭넓게 연구해왔다. 배출기준에 한참 못 미치니가 영향이 없다? 현장에서 오래 일했던 제겐 굉장히 도식적인

평가란 생각이 든다. 아울러 원자핵공학과 방사선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분야는 별개라고 생각된다. 원자핵공학에서 방사성의 영향을 분석하는 몇 가지 전제가 이 문제를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다.

첫째, 선량이란 게 고정불변하지 않고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는 점이다. 소위 방사능 선량의 단위로 흡수선량, 등가선량, 유효선량 등은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핵분열에 따라 방출되는 방사선 빈도에 방사선 종류에 따른 에너지 흡수, 선질계수, 보정인자, 조직가중치 등을 적용해 계산하는 것으로서, 선질계수, 보정인자, 조직가중치 등이 그동안 계속 변화해 왔다. 핵종에 따라서는 생물학적 효과의 크기에 대한 이견들이 아직도 분분한 상황이다. 결국 지금도 변화하는 방사선 선량은 계속되는 게 아닌 모델에 의해 계산되는 것으로, 모델 가정에 따라 수치가 달라진다. 최근의 예로서 소위 자연방사능이라고 하는 라돈의 선량이 아무런 자연 변화나 측정 변화 없이 단지 그 계산만 변했다. 특히 삼중수소의 생물학적 효과는 측정항목에 따라 수배에서 수백 배에 이르는 차이를 보여준다. 삼중수소 선량이 작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모델을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 하는데, 실은 핵 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합의란 점을 지적하고 싶다.

선량 개념, 수시로 바뀐 점 지적도

둘째로 후쿠시마 원전 방출수가 어떤 부작용을 초래할지 파악하려면 방출 이전 기준 위험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 IAEA는 기준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앞바다의 기존 오염 정도를 무시하거나 없는 것으로 전제하고, 마치 증류수에 희석된 양 방출수 오염 정도를 비교하니 영향이 없다, 굉장히 미미하다, 하는 것이다.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물질의 위험을 예로 들면, 간은 독성물질 해독과 작용에 밀접한 장기다. 기존에 간기능이 나빠진 경우 추가되는 독성물질의 위험은 다른 방식으로 평가돼야 한다. 즉 기존 위험에 추가되는 위험이 어떻게 증폭되거나 상호작용할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환경방사능의 위험성 평가도 마찬가지다. 기존 위험은 무시하고, 추가 농도만 계산해, 이에 바닷물과 어류 간 농축계수를 곱하고, 그대로 기준치와 비교하는 것은 이미 오염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 영향을 제대로 판단하는 접근이 아니다. □

“방사능 영향은 생식·성장 등 장기간 걸쳐 살펴봐야”



☐ 셋째, 농축계수는 수생 생물이 그것이 사는 물 중에 존재하는 물질을 높은 농도로 축적할 때, 그 농도비를 나타내는 것으로, 후쿠시마 앞바다와 한국 바다에서 잡힌 어류 간의 세슘 농도를 양 지역 바닷물의 세슘 농도와 비교해 단순하게 정리하면, 후쿠시마는 250배가 넘으며 한국은 40배 정도 수준이다. IAEA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조건과 상관없이 사용한 농축계수가 120배인 것을 감안하면 현실에서 후쿠시마의 농축계수는 이론적 수치보다 2배 이상 높다.

결과적으로 농축계수는 각 지역 환경 조건과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먹이사슬의 위치 혹은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로 1만8000Bq에 이르는 ‘세슘 범벅’ 우럭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데, 이를 단순히 0.01Bq/L 수준의 후쿠시마 앞바다 표층 해수 농도가 120배로 농축되는 계수로 설명하기엔 그보다 1만배 더 농축돼야 하는 차이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결국 IAEA의 문건은 광장히 한정된 방식으로 어류, 패류, 해초 3가지만 다뤘고, 방사성 물질에 대한 측정도 세슘하고 몇 가지 물질만 포함한 간이평가에 지나지 않는다.

끝으로 방사능 영향의 평가는 해당 생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이상의 것으로, 생식과 성장을 포함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조건이 변하면서 일어나는 생태 영향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즉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짓는 것은 장기간에 걸친 만성적 축적을 통한 영향이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는 점이 지적돼야 한다.

방사선 부작용에만 치중할 수 없어
▶양승오= 방사선의학 분야 종사자로서 방사선의 부작용에만 치중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방사선은 혈관조영술, CT 검사 등 의학 분야뿐 아니라 동식물의 연구, 미술품 감정 등 산업 분야에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윈트겐 박사가 엑스레이를 발견한 게 1895년 11월이었다. 다음 해 1월 말 학자들을 비롯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검증하기 위해 엑스레이로 필리커 교수의 손을 촬영했다. 당시에 엑스레이 사진 1장 찍는 데 1시간쯤 걸려서 피폭량이 상당히 많았지만, 방사선 위험을 잘 몰랐던 초창기였다.

1896년 앙리 베르셀이 방사능을, 피에

르 퀴리·마리 퀴리 부부가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함으로써 방사선의학이 태동했다. 마리 퀴리는 엑스레이를 활용해 1차 세계대전에서 부상 당한 많은 군인을 치료했다.

현재는 엑스레이를 사용하는 방사선 기기들이 엄청나게 좋아졌다. 피폭선량도 많이 줄어 제가 전공의 할 때보다 매우 낮아졌다. 연세대에서 획기적인 암 치료법이라며 시작한 중입자 가속기도 실은 폭발적인 에너지의 방사선을 사용하는 것이다. 방사선이 인류의 건강에 얼마나 위해를 끼치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는 동의하지만, 백도명 교수가 측정과 계산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용어를 갖고 너무 첨예하게 부딪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2011년 동남원자력 의학원 근처 기장군의 갑상선암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다. 주민들이 원전의 방사선 때문에 갑상선암에 많이 걸렸다고 주장했고 법정 다툼으로 갔다. 2심에서 갑상선암 발병과 원전은 관계없다는 판결이 났다. 첨단 초음파 장비로 조기 검진을 자주 하다 보니 발견이 많이 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의학적으로 볼 때 갑상선암 발병은 원전 주위의 방사선과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후쿠시마 원전의 물을 바다로 방류하는 것을 옹호하진 않지만, 공적 영역에서 학자들이 방사선의 두려움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가 인류에게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저선량 방사선마저도 두려워 꼭 피해야했다면 심장마비와 와도, 뇌동맥 혈류가 터져도 적절한 스텐트삽입 시술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시술은 방사선 장비를 사용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양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바다에 유입된 방사성 물질이 해류에 의해 우리 바다로 오는 데는 빨라야 9년 걸린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한 적이 있다. 후쿠시마 앞바다의 물은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일본에서 동쪽으로 즉, 미국 방향으로 흐르는데 가는데 4~5년, 오는 데 4~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 결과에 의하면 후쿠시마 방출수의 우리 해역 도달 시점을 최소 7개월로 제시하기도 하는데, 해류 흐름과 시간을 고려하면, 해류를 통해서는 수 년 이내에 우리 해역에 유입되기는 어

렵다. 확산에 의한 유입이 해류에 의한 유입보다 더 빨리 우리나라 주변 바다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바다에는 현재, 세슘이 1~2Bq/m³, 삼중수소가 약 100Bq/m³ 농도로 존재한다. 4~5년 후 우리 바다에 유입될 것으로 예측되는 삼중수소의 농도는 현재 농도의 약 10만분의 1 정도다.

후쿠시마 원전 방출수 사태를 지켜보면서 환경문제에 있어 전문가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다. 유사 분야의 학자들 목소리가 뒤섞여 무척 혼란스러워지더라. 설상가상 언론은 과학자들을 찬성과 반대로 나누고 한번 입장을 정하면 계속 그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만 펴게 한다. 과학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다. 진영 간 다툼에 따라 무리한 논리가 난무하고 과학자의 목소리는 종종 묻혀버리는 것 같다.

언론이 찬반 갈라 양극 나눈 측면도

▶박군철 좌장= 후쿠시마 방출수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들었다. 이제부터 자유롭게 본인 의견을 말해주면 좋겠다. 먼저 백 교수가 선량 측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가 부연해달라.

▶김기현= 방사선량뿐 아니라, 모든 양은 기본적으로 그 정의부터 사회적 합의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합의된 기준으로부터의 변환을 통해 값을 산출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관리 기준으로서 방사선량을 산출하는 방법 또한 충분한 여유도를 바탕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위험도를 관리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약속이자 노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방사선의 인체 영향에 대한 부분은 비단 한 분야 사람들만의 영역이 아니다. 물론 세포에 대한 영향은 생물학의 영역이고, 인체 전반에 대한 영향은 의학의 영역일 수 있으나, 이 또한 방사선원의 특성과 선량이 정확히 정량적으로 평가됐음을 전제로 할 때 유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측정은 불확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마련인데, 선량을 평가하는 방법론이나 측정하는 방식에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고, 막연하게 얘기하기보다, 명확히 어떤 부분에 있어 오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

지적하신 대로 선량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제대로 정립된 양이 아니라고 해놓고, 저선량에 의한 인체 영향

을 강조하여 논의하는 건 모순 아닌가?

▶백도명=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의 요체는 평가 모델에 있어서의 구조나 내용인 것 같다. 그런데 평가 모델이 불확실하거나 없는 경우가 꽤 있다. 그중 하나가 라돈(Rn)이다. 라돈에 대한 선량환산계수는 연구자마다 다르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높아지고 있다. 또한 라돈의 인체 내부 피폭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계산하는 데는 평가 모델 자체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그런 것이 무시된 채 선량이 계산되고 그 값을 기준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방출수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소위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든 예가 포타슘40 함량이다. 선량 한도가 없는 포타슘40 핵종을 놓고, 이를 기준으로 후쿠시마 물에 1500Bq, 커피 한 잔에 4900Bq 있다고 하면서 커피 한 잔에 후쿠시마 방출수보다 많은 방사능 물질이 있다는 식으로 호도한다. 선량이란 개념을 이상하게 사용하면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합리적 의혹을 괴담으로 치부하는 것이 더욱 공포감을 조장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엄연히 과학의 문제일진대 이를 무시하고 부정함으로써 산업적 이해관계나 원자력업계의 시각에서 현재의 논란을 덮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병진= 방사선이 지나가면서 물질에 저장한 에너지로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것도 일종의 간접 측정이다. 직접 측정이 아니라 식으로 측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후쿠시마 방출수 문제를 넘어 방사선 피폭 등에 대한 학술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백 교수의 말씀은 산업적 응용 수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굉장히 미미한 수치를 침소봉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괜찮다, 아니다, 의견 대립 평행선

▶백도명= 애당초 후쿠시마 원전사고 같은 게 일어날 거라는 예측 또는 전망은 원자력발전소를 수만 년 가동해야 한 번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100년도 안 돼서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두 건의 대형 원전사고가 일어났다. 소위 핵 산업계에서 전망한 수치가 이미 틀린 셈이다.

▶양승오= 확률을 따진다면 어떤 이벤트가 먼저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다. 앞으

로 오랫동안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박군철= 코로나 발병률로 따지면 걸린 사람에겐 100%, 안 걸린 사람에겐 0%다. 1만년 후에 원전사고가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나하곤 전혀 상관없어도 확률은 1만분의 1이듯 지금 일어났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확률이 100%인 건 아니다. ‘확률의 마술’이기 때문에 따지기 어렵다.

▶백도명=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점에 의해서 사전과 사후가 달라져야 한다. 사전에 어떤 근거로 확률을 산출했든 이후 발생한 사건이나 경험에 따라 다시 조정돼야 한다. 산업적 응용의 차원에서도 훨씬 다르게 확률을 얘기해야 하는 시점이다. 정 교수는 100이나 1000을 논의하는 데 있어 1이나 2라면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1이나 2가 될 거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가? 방사선의 양이 아닌, 그것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선 제 얘기가 맞다.

▶양승오= 각자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조금만 달라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다. 산업 현장에서 석면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노력해 온 백 교수는 후쿠시마 방출수의 방사능과 나아가 방사능 물질로 인한 조금의 위해도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원자력학회 회장으로서 정 교수는 방사능 물질의 활용도를 감안하면 그러한 우려가 과도한 의혹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조양기= 후쿠시마 방출수 관련해서 주변인들의 질문을 많이 받는데, 난감하다. 질문의 핵심은 영향의 유무인데 사람마다 영향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분은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영향으로, 또 어떤 분은 회를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중점으로, 다른 어떤 분은 정말 0.00001이라도 뭔가 위험한 물질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질문한다. 그러므로 답변하기 어렵다. 요즘 일기예보는 비가 온다, 안 온다 하지 않고 비 확률이 얼마나 된다는 식으로 하더라. 우리도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정량적으로 얘기하고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돌리면 어떨까.

▶박군철= 후쿠시마 원전 방출수는 충분한 안전 여유도 하에서 관리될 것이다. 과학은 대중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이 너무 염려하지 말고, 전문가 의견을 믿고 자기 생활을 잘 영위해나갔으면 좋겠다. 정리·나경태 기자

“AI기반 디지털 교과서 도입해 맞춤형 교육 하겠다”

이주호 (무역79-83)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세계 최고 수준 돌봄·교육 실현 디지털교과서, 교사 역할 바꿀 것

“대한민국은 교육의 힘으로 이만큼 성공한 나라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사회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교육이 크게 바뀌는 대전환기가 왔습니다.”

9월 14일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모교 조찬포럼에서 강연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개혁의 성공을 자신했다. ‘모두를 위한 맞춤형교육’을 통해서다. 이날 본회 김종섭 회장과 이희범 명예회장, 김인규 학습위원장을 비롯해 유흥림 모교 총장, 오세정 전 모교 총장, 신문규 교육부 기조실장, 안양옥 전 교총회장, 이남식 인천재능대 총장 등 교육계 전문가 동문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주호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역임 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재직했고, 국제기구인 글로벌교육위원회(The Education Commission) 산하 ‘에듀케이션 워크포스 이니셔티브(Education Workforce Initiative)’에서 미래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방법으로 AI를 활용한 수업을 깊이 연구했다. 당시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시아교육협회를 설립해 한국에 AI 기반의 ‘하이 터치 하이 테크(High Touch High Tech)’ 교육도입에 앞장섰다. 그 과정에서 현재 추진

중인 맞춤형 교육의 밑그림을 그렸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재능과 개성, 가정 배경, 지역이 다 다른데 획일화된, 공장형 교육이 많은 아이들을 실패시켰고, 대한민국의 교육 위기를 촉발하고 가속화시켰습니다. 이제 맞춤형 교육이 제대로 뿌리를 내려야 교육이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어느 지역에서 살든 우리 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키우는 것이 누구나 공감하는 교육 개혁의 목표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라도 0세부터 11세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추진 중인 정책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다. 이 동문은 0세부터 6세까지 유보 통합, 6세부터 11세까지 늘봄학교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면 저출산 문제도 반

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보 통합은 복지부 소

관이던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유지에만 담당하던 교육부에 이관함으로써 영유아 시기에 분리된 보육과 교육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돌봄은 ‘늘봄학교’로 책임진다고 내세웠다.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새로운 고민이 시작됩니다. 1시가 되면 집에 돌려보내거든요. 엄마가 일을 하면 학원 뺑뺑이를 돌리거나,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하죠. 선진국에선 오후 늦게까지 학교가 아이들을 돌봐 줍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점심 먹고 나면 소위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는 매니저로 바뀌어서 스포츠나

예술 활동도 하고, 돌봄 프로그램도 하죠. 우리도 올해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어요. 2025년까지 도입하려던 걸 한 해 당겨 내년 1학기 2000개 학교, 2학기 4000개 학교에 확산하려고 합니다.”

학교 시설 복합화와 맞춤형 교실도 추진한다. 시설 복합화는 학교의

스포츠 시설과 도서관 등을 지역사회와 같이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초자치단체당 1개 이상 구축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무엇보다 강력하게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실이다. 이 장관은 앞서 아시아교육협회 활동을 통해 베트남에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의 성공 사례를 경험했다. 한국에도 20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AI 기반의 코스웨어(교과과정+소프트웨어)가 적용된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독일 주정부 한 곳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긴 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모든 학교에 보급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최초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클라우드 기술, 태블릿 등 디지털 디바이스와 우수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 등을 갖춘 우리나라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에 준비된 나라”라는 분석이다.

“AI가 들어간 디지털 교과서는 문제 푸는 속도 등을 분석해서 아이들 한 명의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역량에 맞춰 어떤 문제를 풀게 해야 할지도 명확하게 알고 있죠. 기존엔 학기 시작 후 중간고사를 쳐봐야 아이들 실력을 알 수 있었지만, AI 디지털 교과서는 첫째 날에 알 수 있어요. 한 반에 아이들이 20명 있으면 보조교사 20명이 생기는 셈이죠.”

교권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자연스럽게 교사의 역할 변화도 불러올 수 있으리라고 그는 말했다. “아이들이 하루종일 스크린

만 보고 있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AI가 영어, 수학 등의 지식 전달을 담당하는 게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은 선생님들이 인성과 창의성, 보다 인간적인 측면을 케어해주는 역할로 역할이 완전히 대 전환 됩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오전엔 AI와 공부하고, 오후엔 선생님과 클럽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 ‘하이 터치 하이 테크’라는 이름을 붙였죠. AI는 학력을 책임지고(하이 테크), 교사는 감성과 창의성을 교육하게 될 겁니다(하이 터치).”

이 동문은 마지막으로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 혁신’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파견하던 국립대학 사무국장을 민간에 개방하며 임용권을 총장에 넘겨주고,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 행정·재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위임하기로 한 것이 그 일환이다. “교육부가 대학을 규제하는 시대는 끝나고 이제 혁신 생태계를 지원해주는 역할을 할 겁니다. 혁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대학 혁신이 완성되려면 교수님들도 전공과 영역 간 경계 허물기에 동참해주셔야 합니다.”

이번이 두 번째 교육부장관직인 이 동문은 입각하자마자 학교 폭력, 사교육 카르텔, 교권 추락 등의 문제 해결에 전력해 왔다. “힘들기는 하지만 제가 있을 때 고쳐야 할 운명이라 생각한다. 한 번(장관을) 해봤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고칠 수 있다”는 말에 참석한 동문들은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이날 본회에서 참석자 전원에게 이 동문의 책 ‘AI 교육 혁명’을 증정했다. 박수진 기자



“돈으로 애 낳게 할 수 없어…사회가 함께 기른다는 신뢰 줘야”

김영미 (사회복지97-01)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구 감소, 교육·국방 등 연쇄 타격 정부·기업, 합심·인프라 구축해야

“미국의 리서치 회사에서 선진 17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당신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게 무엇인가’ 묻는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가족을 1순위로 꼽았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가 1순위였어요. 2순위가 건강, 3순위가 가족이었죠. 친구는 5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가족은 물론 공동체에 대한 가치 인식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단순히 돈 얼마 준다고 해서 결혼하고 출산하고 그러진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관악경제인회가 10월 5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제3회 조찬포럼을 개최했다. 이부섭(화학공학56-60) 회장, 이희범(전자공학67-71) 명예회장, 서병륜(농공69-73) 수석부회장, 조완규(생물48-52) 전 모교 총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 김영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초저출생, 초고령 시대 인구정책이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연단에 올랐다.

김 부위원장은 오랫동안 학계에 몸담으며 저출산·돌봄·가족 문제를 연구해 온 사회복지 전문가다. 수조 원대 재정이 투입되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강조하면서 기존 사업들을 정책 실수요자인 청년층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008년부터 동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2005년 설립돼 2006년부터 예산이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2조원대에서 시작해 작년엔 51조 7000여억원이 투입됐죠. 16년 동안 280조가 투입됐는데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3명에서 2022년 0.78명으로, 떨어졌다는 수준을 넘어 급락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많은 돈을 어디에 썼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요.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되는데요. 약 10년 전부터 청년·교육·주거 지원 같은 데도 관련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 사회구조적 문제가 복합돼 저출산 문제가 나타나긴 하지만, 저출산 대책 안에 너무 많은 정책이 들어가 일으키는 착시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실제로 아동이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데 직접 쓰인 정부 지출은 2019년 기준 GDP 대비 1.56%. OECD 국가 평균 2.3%에 못 미친다. 국가의 현재 인구구

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으로 우리나라는 1983년 이미 저출산 단계에 접어들었다. 2001년엔 1.31명으로 초저출산 단계, 2017년엔 1.05명으로 극저출산 단계에 진입해 현재 3차 인구절벽 상황을 겪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40년 전 100만명에서 딱 4분의 1 수준. 김 부위원장은 교육·국방·근로·납세 등 국민의 4대 의무가 순차적으로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5년여 동안 어린이집 900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방은 물론 서울 소재 초등학교의 폐교도 나타났고요. 2020년 789만명 인 학령인구가 2040년엔 447만명, 2070년엔 328만명으로 줄어 들 전망입니다.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연쇄적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국방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안 그래도 적은 인구 중에서 남성만 의무를 지니까요. 군 첨단화를 통해 방안을 모색하곤 있지만 대만, 노르웨이 같은 여성 징병제를 시행한 나라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생산인구 감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연금 개혁도 무척 지지

부진한데 당장은 건강보험이 더 큰 문제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가 더 빨라지면서 65세 이상 진료비 비중이 50%를 돌파했어요. 사회보장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세대 간 갈등이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는 지방에서 더 심각하다. 전라남도의 경우 전체 인구가 170만 명 밖에 안 되는 상황. 최근 5년 사이 청년 인구가 급격하게 수도권으로 이탈하

면서 사회 인프라 자체가 붕괴, 출산을 하려면 서울로 병원을 찾아 가야 한다. 일자리 또한 수도권에 1000대 기업의 86.9%가 집중돼 있다. 지방소멸은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다. 수도권도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지방의 위기는 서울의 위기이기도 한 것. 청년들 사이에선 ‘지방에는 먹이가 없고, 서울에는 동지가 없다’는 말이 회자된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집값이 무척 비쌉니다. 지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요. 그러나 일자리는 물론 사회적 문화적 인프라도 부족하다 보니 청년들이 지방에 내려가 살 엄두를 못 냅니다. 정부가 나서 교육·의료·돌봄·주거 등 인프라를 구축해 물꼬를 터주고,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긴밀한 협력이 이뤄져야 해요. 아이 낳을 때마다 1억씩 준다고 하면 애 낳을까요? 우리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는 그런 신뢰를 주는 게 더 중요하죠. 인식과 문화의 대전환이 절실하죠. 이러한 대전환에 동문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함께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악경제인회는 이날 참석한 동문 모두에게 김 부위원장의 추천도서 ‘인구 위기, 스웨덴 출산율 대반전을 이끈 뒤르달 부부의 인구 문제 해법’을 증정했다. 나경태 기자



“뉴스 75%를 소비하는 포털, 책임은 ‘나 몰라라’...문제있다”

이동관 (정치76-81)
방송통신위원장



대담: 신예리 (영문87-91)
전 JTBC 교양팩추얼본부장(현 자문역)

지난 8월 28일 제9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한 이동관 동문. 국정 감사 등으로 정신없이 바쁜 일정을 쫓아 총동창신문과 취임 후 첫 언론 인터뷰를 가졌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동창신문 논설위원으로 봉사한 특별한 인연 때문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외협력 특보를 거쳐 방송통신위원장을 맡게 된 그의 행보에 많은 이들의 눈길이 쏠려 있다. 10월 11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동문을 만나 포부를 물었다.

-임명되기까지 과정이 그다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청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걸 미리 예상하셨을 텐데 방통위원장이 꼭 돼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솔직히 안팎의 반대가 많았죠. 대처하는 과정에서 상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 한번은 꼭 돌파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학폭 문제나 언론 장악 의혹에 대한 오해를 풀 자신이 있었어요. 대통령께서도 이해하시고 격려해주셨고요. 인사권자의 임명 의지가 강해서 제가 못 하겠다 안 하겠다 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꽃길이라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소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더 커졌습니다. 선거에 이겨서 의회의 구도를 바꾸는 것 못지않게 미디어 생태계의 지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겠다는 위기의식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죠. 힘들겠지만 나중이라도 ‘이동관이 언론 지형을 공정하게 바로 잡았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어떤 자리보다 보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제대로 굴러가게 하겠다는 포부인데,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도 각기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있죠. 특히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 외국계 기업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의 경우 방통위에서 규제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나요?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죠. 통상 마찰 문제까지 있어서 사실상 그동안 방치돼 왔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글로벌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각종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도 그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전보다는 협조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가짜뉴스라고 판단돼 협

조를 구하면, 심한 경우 차단하거나 삭제하기도 하고 관련 콘텐츠에 관계기관의 심의상태 관련 안내문구를 표시합니다. 이처럼 내부에 심의 기구를 뒤져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은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국감에서도 논란이 된 게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들 업체를 어떻게 규제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영역이 생길 때 기업이 스스로 자율규제를 통해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그런 사례들이 축적된 이후에 법적 규제 필요성이 커지면 그때 입법하는 순서로 가야 합니다. 자율 규제 시스템 없이 바로 입법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뉴스 소비패턴을 보면 포털 의존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방송, 신문보다 더 앞서 있죠. 그동안 보수, 진보 정권을 가릴 것 없이 포털의 알고리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이버의 경우 알고리즘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방통위에서 공정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75%의 뉴스 소비자가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접합니다. 그럼에도 포털이 언론으로서 아무런 책임을 안겨요. 가짜 뉴스를 실어나르고 있음에도, 원천 생산한 언론사에만 책임을 묻고 거기서 해결을 안 해주면 네이버는 ‘나 몰라라’ 합니다. 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신문·방송사들이 디지털 전환 초기 단계에서 포털에 쓴 값에 기사를 넘겨주는 방식을 택한 게 큰 실책이었죠. 그 바람에 외국과는 전혀 다른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바로 잡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포털에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부분에 대해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포털 장악’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선 자율규제에 맡기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여야가 바뀌면서 입법을 한다, 못 한다 오랫동안 씨름이 이어져 왔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공정한 생태계에서 자유로운 정보 소통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왼쪽으로 기울었으니 오른쪽으로 기울도록 만들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제가 그랬어요. 가짜 뉴스 단속이 왜 야당한테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건 속단이라고요. 최근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딥페이크 기법의 가짜 뉴스까지 나오는 판에 앞으로 무슨 큰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공정한 언론 지형, 생태계를 만드는 게 나의 소명이고 그것이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자기한테 불리한 진짜 뉴스를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면서 문제를 더 키운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 가짜 뉴스란 용어가,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아요. 허위 정보 또는 허위 조작 정보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하겠죠. 다만 가짜 뉴스란 말이 갖는 파괴력 때문에 할 수 없이 가짜 뉴스라는



가짜뉴스 온상 SNS, 포털 자정 기능 강화 KBS, 공영방송 목적에 맞게 ‘재건축’

언론지형 공정하게 바로잡았다는 말 듣고싶어 고사직전 토종OTT 아끼지 않은 지원

용어를 쓰게 되죠. 국감장에서도 저에게 가짜 뉴스의 정의가 뭐냐 묻더군요. ABC 등급으로 나눠 답변했어요. A급 가짜 뉴스는 허위 조작 정보, B급은 사실임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이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퍼트린 정보, C급은 본인은 사실로 믿었는데 나중에 아니었던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건강한 사회라면 공론의 장에서 B, C급은 걸러지기 마련입니다. 철저히 규제해야 하는 대상은 A급 가짜 뉴스죠.”

-언론을 소비하는 시민들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통위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그런 일을 하죠. 그런데 ‘미디어 리터러시’란 용어가 잘 안 와 닿아요. 가짜 뉴스 식별법, 좋은 뉴스 구별법 등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영방송의 개혁 문제는 보수·진보 정권 모두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지만 사실 국민의 공감을 얻는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다를까요.

“현재 KBS가 공영방송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나? 저는 그 의문점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KBS2 채널의 경우 왜 공영 방송이 민영 방송과 똑같이 예능 프로그램과 드라마로 경쟁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보도, 시사, 다큐멘터리 등의 분야에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일본 NHK가 좋은 모델

이라고 생각합니다. NHK를 보면 누구나 저기에 나오는 뉴스는 대체로 맞을 것이라 신뢰가 있습니다. NHK 뉴스 프로그램은 재미는 없지만, 보도준칙에 맞춰 확인 안 된 것은 절대 내보내지 않습니다. 얼마 전 수신료 병합 징수를 중단한 것도 KBS 개혁을 위한 것입니다. KBS는 재건축 수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런 방대한 작업을 임기 내에 다 마칠 수 있을까요?

“지금 안 하면 영원히 못 한다는 마음으로 임하려고요. 전 세계에 750만명의 교민들이 살고 있고, K컬처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로 송출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방송채널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아리랑TV나 현재 KBS 월드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국민적 신뢰를 얻는 뉴스를 하는 공영방송, 24시간 영어 방송으로 우리의 콘텐츠를 세계 전파하는 국제방송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에서도 그랬지만 임기 전에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법적 절차를 지켜서 진행한 겁니다. 지금의 KBS 상황을 악화시킨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과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KBS가 2007년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

프로필

△미국 하버드대 니만 펠로우 △동아일보 정치부장, 논설위원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대통령 언론특보 △외교통상부 언론문화특임대사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역임

기관 평가대상에서 빠졌어요. 그전에는 경영평가에 따라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임기를 방패로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금도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넷플릭스 등에 맞서 국내 OTT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죠.

“방통위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과기부, 문체부 등과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현재 토종 OTT는 고사일 보 직전입니다.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지금처럼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속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를 키우고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정책 얘기는 이쯤에서 마치고 동창회보에 걸맞은 질문도 드려보죠. 모교 재학 시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는지요.

“여러 단과대학이 1975년에 관악으로 모이기 시작했지만, 75학번들은 동송동 갔다, 종암동 갔다 하며 공부를 했지요. 76학번인 우리가 진정한 관악 1세대라고 할 수 있죠. 김부겸, 정두언, 임태희, 최규락 등이 동기예요. 관악캠퍼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죠. 관악캠퍼스가 골프장 자리였기 때문에 풀밭이 많았어요. 지금 법대 자리의 풀밭에 앉아 카드 게임인 마이티를 많이 했죠. 그럼 당시 윤천주 총장이 돌아다니면서 스페이드 A를 뺏어가곤 하셨어요. 그 한 장이 없으면 게임을 할 수 없으니까요. 또 기억에 남는 것은 미국학연연구소 조교 시절, 구영록 교수님을 따라 미국 하와이대학에서 열린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행사에 간 일입니다. 첫 해외 여행이었는데 당시 내로라하는 학자들을 거기서 다 만났습니다. 로버트 스칼라피노, 브루스 커밍스부터 서대숙, 김학준, 한승주, 이정식 교수 등 양국의 석학들인데 어떻게 그 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는지 신기해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서울대를 관악캠퍼스로 옮긴 게 서울 시내에서 시위 못 하게 하려고 한 거란 이야기가 정설로 떠돌지 않아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나중에 민관식 국회 부의장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대도 해외 유수 대학처럼 한곳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고 해요.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종합대학으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데모 등의 이유도 있었겠지만, 큰 교육 방향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동창신문 논설위원도 오래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동창회에 한 말씀 하신다면.

“김종섭 회장님은 제가 동창신문 논설위원 할 때도 워낙 열정적으로 일하시던 분이랄까 잘 이끌어주실 거란 믿음이 있었어요. 동창회 행사에 자주 참석은 못 하지만,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소모임 탐방] 의대동창회 와인동호회

와인은 나눠 마셔야 제맛이죠

78학번 동문 18명 모여
분기에 한번 6년째 친목

똑같은 술이지만, 와인은 좀 다르다. 건배는 해도 원샷은 하지 않으며, 함께 마시는 상대방의 페이스에 맞춰 완급을 조절한다. 잔을 들어 술을 받는 대신 잔의 베이스 위에 손가락을 살짝 올려 표시하는 예의는 수직적이지 않고 친근하다. 다른 술과 달리 ‘하사’하는 어떤 것이 아닐뿐더러 ‘마시고 취하자’는 식의 음주 문화와도 거리를 두고 있다.

의대 78학번 동문들은 와인의 이러한 매력을 일찍부터 깨닫고 2017년 가을부터 3개월마다 한 번씩 6년째 와인 모임을 열고 있다. 지난 9월 15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열린 3분기 정기모임에 참석해 총무를 맡고 있는 진태훈 동문으로부터 와인동호회 이야기를 들었다.

“2014년 졸업 30주년 무렵부터 동기 모임에 양주와 폭탄주가 완전히 사라지고 와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50대 중반이 넘어가는 나이에 독한 술은 무리였고, 다양한 음식과 궁합이 좋은 와인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죠. 개원을 했던 대학병원에 있던 의사라는 직업은 단조롭고 고립된 생활을 하는 탓에 정신적 환기가 절실합니다. 졸업 후 각자의 전공과에서 앞만 보고 달려가다 문득 주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고요. 동기들과 만나 식사하며 대화와 함께 와인 한잔을 나누는 이유죠.”

78학번 와인 동호회는 회장, 회칙, 회비가 없는 ‘3무(無)’ 모임이다. 모임을



9월 15일 열린 의대동창회 와인동호회 정기모임에서 참석 동문들이 잔을 들어 포즈를 취했다.

총괄하는 총무와 참석하는 회원이 있을 뿐이다. 과음을 피하기 위해 와인의 수량을 참석자 2명당 1병으로 제한하고, 음식값을 참석자 수로 나눠 똑같이 부담한다. 아껴뒀던 좋은 와인을 지참해 나눠 마셔도 동기들이 맛있게 즐기는 것에서 보람을 느낄 뿐 별도의 혜택은 없다. 와인은 혼자 한 병을 다 마실 수도, 몰래 마실 수도 없으며, 나눠 마실 때가 가장 맛있기 때문이다.

“1병당 8잔 정도 나오는 와인 특성상 한번 모임엔 8명, 넉넉히 잡아도 12명을 넘지 않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모임 규모가 너무 크면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기 어렵거든요. 후배 기수를 영입하는 등 동호회의 외연을 확장하지 않는 이유기도 하죠. 대신 때에 따라 한 명 정도 게스트를 초청합니다. 정기모임 외 회원이 자택으로 초대하는 수시 모임도 종종 있고요. 자신 있는 요리를 직접 조리하기도, 케이터링에 와인까지 풀 코스로 준비하기도 해요. 초대받은 회원은 정성스러운 포트럭(potluck)과

좋은 와인으로 화답합니다.” 의대동창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진태훈 동문은 서울의대 와인을 기획해 동창회 발전기금 조성에 기여하기도 했다. 행사용과 선물용으로 연간 약 400병의 와인을 구매하는데, 그때 반응이 좋은 와인을 3종 선정해 2병 또는 3병 세트로 구성했다고. 세트 구성은 흔치 않은 세일 가격을 접했을 때 구매자가 느낄 실망감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귀띔했다.

“와인엔 스토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와인 공부는 인문학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죠. 그 이쁨에 담긴 스토리를 찾는 것도 와인의 매력입니다. 음식을 먹는 순서에 따라 샴페인은 식전주로, 화이트와 레드에는 메인 요리와 함께, 디저트에는 달콤한 와인을 곁들여 마실 수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식사를 더욱 즐겁게 해줍니다. 동문 여러분들도 귀한 와인이 있다면 인색해지지 마시고 친구들과 나눠 마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경태 기자

약대동창회

동창의 날 350여 명 참가...어깨동무 하고 함박웃음



약대동창회 동창의 날 행사에서 동문과 가족이 게임판 뒤엎기 게임을 하고 있다.

약학대학동창회(회장 원희목)가 9월 24일 관악캠퍼스 20동 및 버들골에서 제40회 동창의 날을 개최했다. 동문과 가족 3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 안양찬·조향연 동문 등 1957년 졸업 동문 8명도 함께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다.

공식 행사에 앞서 동문들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미술관→약학 역사관→전시관 순으로 캠퍼스 투어를 했으며, 동문 자녀들에게 1일 약대생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중고등학생반 20명에게 한병우(화학교육92-99) 약대 교수가 특강을 해줬고, 초등학생반 20명에게 김유진 약대 역사관 학예사가 전시물 설명을 해주고 약포지 스티커를 같이 붙여보는 등 다양한 실습을 했다.

오후 행사는 약대 댄스동아리의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한마음 운동회를 통해 훌라후프 돌리기, 청색 흥색 게임판 뒤엎기, 공굴리기 등 다채로운 게임을 동문과 가족이 함께 즐겼다. 이날 행사는 50회 졸업 동기가 주관했다.

사대동창회

추계문화탐방서 정지용 생가 방문



사대동창회 추계문화탐방 참가 동문들이 정지용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범대학동창회(회장 이규석)가 9월 9일 충청북도 옥천군으로 추계문화탐방을 다녀왔다. 이날 행사엔 이규석(지구과학교육66-73) 회장을 비롯해 동문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옥천 출신인 사대동창회 감사 민병관(역사79-84) 동문이 안내를 맡았다.

동문들은 정지용 시인의 생가를 둘러보고 정지용문학관에 들러 시인의 대표 작품인 ‘향수’를 비롯해 주옥같은 시와 산문을 감상하는 등 정지용 시인의 문학세계를 살폈다.

동문들은 또 정지용의 ‘향수’ 창작

100주년 기념으로 열린 ‘현대성의 탄생! 현대시의 개화’라는 주제의 동북아 국제문학포럼에 참석했고, 제35회 지용문학상 수상자인 유종호(영문53-57) 시인의 시상식을 참관했다.

동문들은 시인과 함께하는 시 노래 콘서트도 보고, 풍물시장에서 향토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하는 등 지용문화제를 즐겼다. 또한 옥천의 대표 관광지인 옥천 향교와 옥연수 여사의 생가에도 들렀다. 이번 행사는 문학을 매개로 동문들이 우의를 다지는 귀한 자리였다.

미대동창회

그림 속 실제 풍경 찾아 강원도로 미술 여행

미술대학동창회(회장 권영걸)가 그림 속 실제 풍경을 찾아 떠나는 미술 여행을 시작했다. 9월 19~20일 진행된 첫 회 미술 여행에서 권영걸(응용미술69-76) 회장을 비롯한 동문 30여 명이 강원도 속초 일원을 탐방하고 돌아왔다.

단원 김홍도, 겸재 정선 등의 그림을 주제로 떠난 이번 여행을 통해 첫째 날 엔고성 통일전망대와 청간정을, 둘째 날엔 설악산 신흥사와 양양 낙산사의 상대, 흥련암 등을 둘러봤다. 황태구이 정식, 물회와 오징어순대, 도토리묵과 산채비빔밥 등 특명이 맛집 탐방도 병행해 먹는 즐거움까지 더했다. 미대동창회는 미술 여행에서 받은



9월 19~20일 미대동창회 미술 여행에 참가한 동문들이 청간정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영감을 작품에 옮겨 함께 나누는, 가치 ‘이시동시(異時同視)’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더 다양한 주제의 미술 여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의대동창회

김건호·신동국·민동수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백영욱)가 9월 24일 관악캠퍼스 85동 스킵드홀에서 정기총회를 열었다. 백영욱(81-88) 회장, 김민수(02-06) 교무부장을 비롯해 동문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김건호(70-74) 애농원 대표, 신동국(76-80) Animal Medical Clinic 원장, 민동수(81-85) 다비육종 대표가 제22회 자랑스러운 수의대인상을 받았다.

김건호 동문은 지난 40년간 한국 양돈 산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했던 도드람의 시작과 증흥에 기여했으며, 수의사 출신



김건호 신동국 민동수

으로 양돈 분야에 일가를 이뤄 후배 수의사의 진출에 롤 모델이 됐다. 2014년 제23대 수의대동창회 회장을 맡아 봉사하는 등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기여했다. 신동국 동문은 1985년부터 현직에 임하면서 재미 수의대동창회 회장을 포함 여

리 임원을 두루 역임하면서 긴 시간 봉사를 했다. 또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433명의 학생에게 장학금 26만5335달러를 지원한 등 기부를 통해 수의사의 위상과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했다.

민동수 동문은 지난 30년간 우수한 종돈을 공급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보급해 한돈 산업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 2012년 양돈연구회 회장 재임 때 워크숍, 연구포럼, 세미나 등을 열어 한돈 산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양돈 기술을 널리 전파했다.

치대동창회

자선 골프대회 열어 치과계 봉사단체 지원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정상철)가 9월 10일 코스카CC에서 자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5회째 열리는 이번 자선 골프대회는 123명이 참석해 31개 팀으로 경기를 치렀다. 이날 대회는 모교 동문뿐 아니라 박태근 대한치과 의사협회 회장, 연세치대동문회 이정욱 회장 등 타대학 치과계 인사도 다수 함께했다.

기수 대항전으로 진행된 단체전에선 42회(1988년 졸업)가 우승했으며, 40회(1986년 졸업)가 2위, 45회(1991년 졸업)가 3위를 차지했다. 개인전에선 임종호



9월 30일 열린 치대동창회 자선 골프대회에 동문과 치과계 내외빈 등 총 123명이 참가했다.

(82-88) 동문이 1위, 유상일(03-07) 동문이 2위, 오재탁(96-00) 동문이 3위에 올랐다. 특별상으로 30회 졸업 나병선 동문이 최고 기수 참가상을, 76회 졸업 박재환·정원호 동문이 최연소 기수 참가상

을 받았으며, 같은 기수에서 12명이 참가한 59회 동기가 최다 참가 기수상을 받았다. 이번 자선 골프대회에서 모인 기부금은 치과계 봉사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AMP동창회

나눔 골프대회 통해 모교, 복지재단에 7500만원 기부

최고경영자과정(AMP)동창회(회장 윤철주)가 8월 27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아일랜드CC에서 친선 및 나눔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윤철주(64기) 회장을 비롯해 동문 104명이 참가한 이날 대회는 일반부·여성부·시니어부로 나뉘어 치러졌으며, 일반부 챔피언은 이동대(71기), 시니어부 챔피언은 김승배(45기), 여성부 우승은 김경아(95기) 동문이 차지했다.



8월 27일 AMP동창회 나눔 골프대회 기념사진.

또한 대회를 치르고 남은 경비와 모금을 합쳐 모교 경영대학에 5000만원, 장애인 복지재단에 1500만원, 자폐인사랑협회에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대회를 위해 93, 94기 동문들이 각각 1000만원을, 윤철주 회장이 협찬금 300만원과 대형 TV 3대, 비타민C 스틱 180박스를, 권모세(64기) 아일랜드CC 회장이 협찬금 300만원과 숙박권 2매를, 천경준(71기) 씨젠 회장·김성권(75기) 씨에스윈드 회장·최현수(94기) 애즈랜드 대표가 각각 300만원을 협찬하는 등 많은 동문들이 정성을 모았다.

ABKI동창회

몽골로 3박 4일 해외 연수

문헌지식정보최고위과정(ABKI)동창회(회장 이덕원)가 9월 7-10일 3박 4일간 몽골 울란바토르로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이번 해외 연수에 이덕원(57기) 회장을 비롯해 동문 101명이 참가했다.



9월 7-10일 ABKI동창회 해외 연수 기념사진.

동문들은 연수 첫째 날 테렐지 국립공원을 산책하고 몽골 전통 공연을 관람했다. 둘째 날엔 몽골 올레길 일부 구간을 트래킹 후 몽골 전통 의상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었으며, 셋째 날엔 몽골 역사박물관

관을 견학하고 자이승 승전탑 전망대에 올랐다. 독립운동가 이태준 열사의 기념공원에 들르기도 했다.

한울회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미대 동문들 소개



9월 22일 관악캠퍼스 74동에서 열린 한울회 세미나 기념사진. 이날 권영걸·신미경·정종미·신현경·최진희 동문이 자신의 일을 주제로 강연했다.

관악캠퍼스서 세미나 열어

모교 미술대학 여성동문회 한울회(회장 이부연)가 9월 22일 관악캠퍼스 74동 오디토리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부연(응용미술71-75) 회장, 정의철(산업디자인88-95) 미대 학장 등 동문 6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권영걸(응용미술69-76 미대동창회장)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을, 신미경(조소86-90) 조각가, 정종미(회화76-80) 전 고려대 교수, 신현경(회화74-78) 영산대 명예교수, 최진희(서양화83-87) 유리조형 작가 등이 연사로 나섰다. 권영걸 위원장은 ‘국가 건축 및 디자

인 정책의 현재와 미래’란 주제로 연단에 올라 “2007년 서울시 부시장을 맡아 서울을 총괄 디자인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 국가디자인을 맡고 있다”며 10년을 내다보고 고심한 결과 ‘공원 같은 나라, 정원 같은 도시’를 국가 미래 공간의 비전으로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비누를 재료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신미경 작가는 ‘현재까지의 작업 여정’이란 주제로 화상 영상을 통해 강연했다. 15만개의 비누를 기부받아 작업 중인데, 현재는 완성된 조각상보다 만드는 과정에서의 퍼포먼스에 주력하고 있다고. 영국으

로 건너갈 준비를 하던 때 대리석이 비누로 보였던, 전혀 다른 성질의 재료가 똑같이 보였던 경험에 착안해 비누를 주제로 한 작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밖에 정종미 전 교수는 ‘한국화의 재료와 기법’, 신현경 명예교수는 ‘한국의 여성 생태미술’, 최진희 작가는 ‘빛을 받하다’란 주제로 자신만의 특별한 통찰을 들려줬다.

한울회는 지난 9월 6-11일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47회 정기전시회를 개최했다. 유튜브에서 ‘한울회 특별전’을 검색하면 VR 및 동영상 전시물을 감상할 수 있다. 나경태 기자

국토문화기행

육지를 비집고 들어온 삼교천 따라 신앙도 들어왔다

내륙 깊은 해안선 덕 교류 활발 천주교 성지, 실패한 운하 흔적도

‘바다나 호수에서 육지 안쪽으로 들어간 포구, 갯가’를 뜻하는 일반명사 내포(內浦)를 고유 지명으로 가져간 곳이 있다. 충남 예산, 당진, 서산, 홍성, 태안까지 차령산맥 서북쪽을 아우르는 내포 지역이다. 지형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내포의 중심인 아산만 삼교천 하구는 국내에서 내륙 가장 깊숙이 바다물을 찼러 넣는 물길이다. 그야말로 가장 ‘내포다운 내포’. 9월 21일 국토문화기행은 내포의 지리적 특성을 곱씹으며 그에서 기인한 문화를 탐방하는 시간이었다.



9월 21일 30여 동문이 본회 국토문화기행에 참여해 충남 내포 지역을 둘러봤다. (왼쪽) 공세리에 있는 이명래 고약 관련 기념물. (오른쪽 위) 태안 굴포운하 터. (오른쪽 아래) 공세리 성당.

내포는 과거 중국과 교류가 활발한 곳이었다. 중국에서 전해진 것으로 천주교와 불교가 대표적이다. 충남 지역 천주교 전파에서 내포의 중요성은 1860년대 프랑스 선교사들이 그린 지도에 나타나 있다. 지도에는 ‘NAI-PO(내포)’를 상부와 하부로 구분해 주요 읍면까지 표시했다. 육지를 비집고 들어온 여기 바다물처럼 사람들의 마음에도 새로운 신앙이 파고들길 바랐을 터다. 1890년 충남의 두 번째 성당 ‘공세리 성당’이 내포에 들어섰고 바티칸에 입성한 김대건 신부의 신앙도 내포에서 싹텄다.

엔 노적을 하다 80칸의 창고를 지어 조창을 위한 성곽도 쌓았다”는 설명. 19세기 폐지된 조창 자리에 프랑스인 신부가 성당을 지었고 성곽은 마을에 일부 남았다. 성당을 이룬 적벽돌은 중국에서 굵고 중국 기술자들이 건너와 쌓은 것이다. 미사 중인 성당 바깥을 한 바퀴 조심스레 둘러보며 여기저기서 “아담하고, 예쁘다”는 감탄이 나왔다.

성당 축조를 돕던 마을의 젊은 신자 중 이명래가 있었다. 그는 신부에게 배운 프랑스의 본초학을 한약재에 결합해 ‘이명래 고약’을 만들었다. 처음 고약 가게를 연 공세리에 기념 벽이 남아 있다. “맞아, 우리 어릴 때 진짜 유명했지” 동문들은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워 했다.

가톨릭에 앞서 불교 문화가 들어왔다. 내포 지역 백제 석불 3기 중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서산 마애불이 단연 유

명하다. “백제 불교는 마을 단위로 불교 문화 유적을 개발했다. 바위가 작으면 작은 마애불을, 크면 큰 마애불을 만들고 기술이 부족해도 엉성한 대로 만들었다”는 이 교수의 말처럼, 가파른 계단을 올라 닿은 서산 마애불 역시 아담한 규모지만 오묘한 미감으로 보는 이를 사로잡았다. 마애불엔 앞바다를 오가는 선박의 안전을 비는 뜻도 깃들었다.

좋은 것만 들어온 것은 아니다. 물길 타고 빈번히 출몰하는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 지은 것이 해미읍성. 주요 군사거점이었다는 이곳은 천주교 박해가 극심했던 1790~1880년대를 거쳐 성지의 반열에 오른다. 해미읍성 옥사에 수감된 신자 1000여 명이 해미읍성 뜰의 회화나무에 철사줄로 머리가 매달려 모진 고문을 받았다. 한서린 철사자국 닮인지, 폭풍으로 부러져 두 번이나 수술을 받아

서인지, 높이는 뺏겨서도 수세가 처연하다. 세례명을 가진 동문 몇몇이 “여기선 웃지 말자”며 나무를 배경으로 열은 미소만 띄우고 사진을 찍었다.

마지막으로 향한 굴포운하는 역사 속 빼어난 실패의 상징 같은 곳이다. ‘굴포’는 ‘육지를 굴착해 포구를 연결한다’는 뜻. 고려시대 전라도 곡창지대 쌀을 한양으로 운반하던 통로인 태안반도의 안흥량은 험난한 해로로 손꼽혔다. 험로를 피해 서산 가로림만부터 태안 천수만까지 운하를 뚫어보려던 공사가 고려 인종 때 첫삽을 떠 조선까지 지지부진 330년을 끌었다. 단단한 암반과 격한 조수차로 밀려드는 토사를 극복하지 못한 탓이다. 하류, 신숙주, 송시열 등 내로라하는 정승들이 책임자로 나섰지만 족족 실패했다.

미완성의 운하는 이내 잊혀지고, 태안 인평리에 길이가 짧은 저습지 형태로 남

아 ‘굴포운하’라는 팻말과 그나마 주변보다 낮은 땅 높이가 운하를 판 흔적을 알릴 뿐이다. 일행 사이 현대인의 눈으로 “이걸 못 파나” 탄식하는 말, 무의미한 곡괭이질에 지쳐갔을 인부들을 헤아리는 말들이 오갔다. 씩씩한 기분으로 돌아보고 나오는 발밑에 실패의 기억처럼 떨쳐내기 어려운 진흙만이 잔뜩 묻었다.

내포라는 이름과 함께 일찍이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와 중첩되고, 주요 길목으로 각광받았다. 그와 동시에 무수한 희생과 침입의 역사도 함께 가져야 했다. ‘땅의 성격을 알고, 역사를 익히고, 그 속의 사람들을 본다’는 국토문화기행의 취지가 빛났던 내포 여행은 아산만에 노을이 질 무렵 마무리됐다.

본회 국토문화기행은 연 2회 봄가을에 진행된다. 이만부 교수의 안내로 지금까지 6차 기행을 마쳤다. 박수진 기자

조완규·이흥구·이해진, 2023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개학 128주년·통합개교 77주년 기념식

모교(총장 유희림)는 제33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자에 조완규(생물48-52) 전 모교 총장, 이흥구(법학53입) 전 국무총리, 이해진(컴퓨터공학86-90) 네이버 창업자·라인(LINE) 회장을 선정했다. 10월 13일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린 개학 128주년·통합개교 77주년



조완규 이흥구 이해진

년 개교기념식에서 시상식을 열었다. 조완규 동문은 국내 생물학의 여명기에 모교 교수로 부임해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쓴 한편, 자연대 초대 학장과 부총장 등을 역임했다. 1987년 제18대 모교 총장으로 취임, 재임 중 학생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 등 조치를 통해 대학의 자율화와 안정화를 추진하기도 했다. 제32대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국제백신연구소의 모교 관악캠퍼스 위치를 이끌었다.

이흥구 동문은 모교 사회과학대학 정치학과 교수로 약 20년간 재직했다. 주미대사 및 영국 대사,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을 거쳐 제28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통일원 장관 재임 중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설계해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으며, 3개 정부에 걸쳐 실질적 합리론자로서 중용의 리더십을 보여줬다. 서울국제포럼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해진 동문은 네이버 그룹 창업자로서 현재 글로벌투자책임자 및 글로벌 메신저 라인(LINE)의 회장을 맡고 있다. 벤처 1세대로 도전적인 행보를 걸어온 그는 삼성SDS 사내벤처를 통한 국산형 검색엔진 개발을 시작으로 네이버

를 대형 인터넷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 메신저 '라인'을 해외 시장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한 뒤에도 북미, 유럽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날 수상자 대표로 소감을 전한 조동문은 "1946년 문리대 예과 입학 후 오늘날까지 외국에 나간 4년을 빼곤 계속 서울대 땅을 밟으며 살고 있다"고 운을 뗐다. "총장을 그만두면 서울대를 떠날 줄 알았는데, 국제백신연구소 유치위원장을 맡아 국내 유일한 국제기구를 서울대 안에 유치했다"고 돌아봤다.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상임고문을 맡아 연구소 안 사무실에 지금도 출근하고 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 일은 계속될 것이다. 더 열심히 살겠다"고 말하자 감탄사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개교기념식에는 유희림 총장, 분회 김종섭 회장을 비롯해 이기준·이장무 전임 총장, 이부섭 관악경제인회 회장, 모교 김동욱 평의회회 의장, 임정목 교수협의회회장, 관악구 국회의원인 유기홍·정태호 동문, 박준희 관악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유희림 총장은 "대학 혁신의 출발점은 교육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뛰어난 학생들이 입학해 졸업장을 인생의 훈

장처럼 받고 나가는 서울대가 되어선 안 된다"며,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배경과 역량의 학생들이 토론하고 논쟁하는 '서울대 교육' 속에서 '서울대 인재'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서울대형 학부대학과 기숙대학이 추진 중이고, 내년 3월 전공의 장벽을 허문 첨단융합학부가 출범한다.

행정관을 중심으로 조성될 'SNU 커먼스'는 "대학 중심부를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미래인재 육성의 공간으로 만든다"는 뜻이 담겼다. 모교가 추진하는 융복합연구플랫폼은 학내 학문 분야가 모두 참여해 세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과학기술의 진보를 선도하는 초학제적 혁신 생태계를 지향한다.

유 총장은 '제도혁신위원회'를 설치해 대학의 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할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하며, "대학 혁신의 최종 목표는 그 결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분회 김종섭 회장은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되신 조완규 전임 총장님과 이흥구 전임 국무총리께서는 제 문리대 재학 시절 은사였다. 그때 씩씩한 청년 교수님들이셨는데, 이렇게 모습을 보니 뭐라고 감정을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해 두 수상자를 미소짓게 했다. 김 회장은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계신 유희림 총장과, 겨레의 대학을 넘어 세계의 대학으로 나아가는 모교의 앞길에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서울대, 원기!' 우승 거머쥔 미식축구팀

모교 미식축구부 그린테라스가 10월 7일 모교 관악캠퍼스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 추계 대학미식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성균관대를 21 대 14로 꺾고 우승한 뒤 포효하고 있다. 앞서 4강전에서 서울시립대에 38 대 0의 대승을 거뒀다. 그린테라스는 1947년 한국 유일의 대학 미식축구부로 창단했다. 팀 구호로 '서울대, 원기!'를 외친다.

"'천원의 식사' 디지털 모금 동참해주세요"

고물가 시대를 맞아 대학가에서 1000원에 학생식당 메뉴를 먹을 수 있는 '천원의 식사'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모교가 '천원의 식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모금 사업 '천원의 식사'를 시작했다. 모교는 9월 19일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식당에서 총학생회와 함께 '천원의 식사 100인의 기부 릴레이' 행사를 열었다.

이날 유희림 모교 총장과 부총장단, 학장단과 분회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모금함을 게시했다. 카페 키오스크 형태로 간편하게 '천원의 식사'를 후원할 수 있는 모금함이다. 유희림 총장이 1호 기부자로 100만원을 기부한 데 이어 기부자 101명이 636만 1000원을 모금했다. 분회 송우엽 사무총장도 동참했다.

2015년 시작한 모교 '천원의 식사'는 아침·저녁·점심 순으로 확대되며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어왔다. 2022년 한 해 27만여 명이던 이용자는 올해 7월까지 23만여 명을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모교의 '천원의 식사' 지원 예산은 5억



400여 만원으로 2022년 한 해 지원 예산(5억7000여 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대학마다 시행 중인 천원의 식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1인당 1000원을 지원하고, 학생이 식사비 1000원을 지불한 나머지를 대학이 부담하는 구조다. 늘어난 예산 부담에 '천원의 식사가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는 총학생회의 제안을 계기로 모금을 시작하게 됐다.

'천원의 식사' 모금은 동문도 참여할 수 있다. QR코드를 촬영하면 최소 1000원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후원 페이지에 접속된다.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식당 앞 키오스크(위 사진)에서 모교의 '천원의 식사' 지원 예산은 5억



천원의 식사 온라인 후원 바로가기

정용욱·김병연·황윤재 등 석좌교수 7명 임용



정용욱 김병연 황윤재 김빛내리 현택환 황철성 이용환

모교는 9월 1일 정용욱(국사79-83) 국사학과 교수, 김병연(경제81-85)·황윤재(경제79-83) 경제학부 교수, 김빛내리(미생물88-92) 생명과학부 교수, 현택환(화학83-87)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황철성(무기재료83-87) 재료공학부 교수, 이용환(농생물79-83) 농생명공학부 교수 등 총 7명을 석좌교수에 임용했다. 현택환·김빛내리 교수는 2017년부터, 황윤재·황철성·이용환 교수는 2020년부터 석좌교수직을 맡은 데 이어

로 분석해 그 연구 결과가 비교경제저널(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과 경제적 행동 및 조직 저널(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등 비교경제학과 행동경제학 분야 권위있는 학술지에 게재됐다.

황윤재 교수는 계량경제학자로서 40여 편의 논문을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에 게재했으며, 국내 대학 교원으로 유일하게 경제학자의 최고 영예로 인정되는 세계계량경제학회(Econometric Society)의 석좌회원으로 선출됐다.

모교의 유일한 여성 석좌교수인 김빛내리 교수는 RNA 분야를 선도하는 석학으로, 마이크로RNA의 생성과 작용 원리를 밝히고 RNA 꼬리 분야를 개척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체 지도를 작성하기도 했다.

현택환 교수는 크기와 모양이 일정한 나노 입자와 관련 나노소재의 합성·응용에 관한 연구에 매진해 지금까지 45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출판하고 10만회 이상(구글 스콜라 기준) 인용됐

다. 논문 피인용 상위 0.1% 연구자인 'CL(Citation Laureates)'에 선정되기도 했다.

황철성 교수는 1998년 모교 부임 이후 반도체 소자, 재료, 공정 분야 연구 및 교육에 매진해 약 230명의 석·박사 제자를 양성했다. 700여 편의 SCI 논문을 발표하는 한편 산업계 협력과 정부 정책 자문을 통해 반도체 분야의 발전에 전방위적으로 기여했다.

이용환 교수는 벼도열병과 같은 식물병 발생 메커니즘을 식물병리학, 유전체학, 생물정보학 등 다학제적으로 연구해 세계적인 수준의 성과를 이뤘다. 진핵미생물 병원성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모교 석좌교수는 이번 임용된 7명을 비롯해 총 14명이다. 이 중 초빙석좌교수로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장, 반기문 IOC 윤리위원장 재직하고 있다. 석좌교수에게는 학술연구활동수당 지급 및 교원 책임시간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모교 도서관에 '박완서의 서재' 생긴다

모교 중앙도서관(관장 장덕진)에 박완서(국문50입) 작가의 소장 서적과 기록 등을 모은 아카이브가 설치된다. '아치울 노란집'으로 불리는 박완서 작가의 자택 서재도 재현된다.

모교는 9월 19일 중앙도서관 관장마루에서 박완서 작가의 유가족인 호원숙(국어교육72-76) 작가와 호원경(의학76-82) 모교 의학과 명예교수, 유희림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카이브 설치 협약식을 열었다.

박완서 아카이브는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 2층에 약 99㎡ 규모로 조성된다. 박완서 작가가 말년을 보낸 경기 구리의 '아치울 노란집' 서재를 재현하고 가족에게 기증받은 작가의 도서 자료와 비도서 자료로 채울 예정이다. 도서 자료에는 박완서 작가의 서재에 있던 도서 3000여 권을 비롯해 저서, 소장서, 학술서 등이 포함됐다.

비도서 자료로는 작가의 일생이 담긴 사진 앨범 30여 권과 책상, 재봉틀 등 생활자 자료를 기증받았다. 이영학 조각가가 만든 흉상, 박완서 작가가 딸 호원숙 작가와 함께 만든 뜨개 담요 등도 함께 전시한다.

협약식에서는 박완서 작가가 2001년부터 2011년 1월 별세 직전까지 쓴 일기



고 박완서 동문이 분회 다이어리에 쓴 일기.

11권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방문한 곳, 한일, 만난 사람, 느낌 등을 진솔하게 기록한 것으로 총동창회 다이어리에 쓰일기도 포함됐다. 박완서 동문이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 500여 통 등 세간에 공개되지 않은 육필자료를 기증받았다.

박완서 작가의 책은 모교 중앙도서관 문학 분야 중에서도 가장 많이 대출된 도서로 꼽힐 만큼 서울대인의 사랑을 받아 왔다. 내년 상반기 중 아카이브가 완공되면 일반 시민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중앙도서관은 계속해서 한국 사회 발전에 공헌한 서울대인의 아카이브를 설치함으로써 도서관(Library) 기능이 기록관(Archive)과 박물관(Museum)의 기능을 더한 라키비움(Larchiveum)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뭉쳐서 일한다...300여 동문 투자자·창업자



10월 5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2023 서울대 동문창업네트워크에 300여 동문 창업자와 투자자가 참석했다.

사진=창업지원단

제3회 동문창업네트워크

창업지원단 내 사무국 설치 초대 회장에 송은강 동문

모교는 10월 5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2023 서울대학교 동문창업네트워크'를 개최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행사로 동문·재학생·교원 창업자와 벤처캐피탈 대표 등 투자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모교 유희림 총장, 김재영 연구부총장 겸 산학협력단장을 비롯해 권오현 SNU홀딩스 이사회 의장, 서동규 SNU홀딩스 대표, 목승환 서울대기술지주회사 대표, 민동주 창업지원단장 등 학내 창업 관련 조직 보직자와 SK수펙스추구협의회 최규남 사장, 발전재단 김기현 부이사장, 관악경제인회 이승무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모교는 이날 "창업을 대학발전의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유희림 총장은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겸비한 서울대 창업 씨앗이 성장하기 위해선 최적의 창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그 지원책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창업지원기금(SNU LEAP) 모금을 조성했고, 이 자리에서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서울대 동문창업네트워크 사무국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사무국 설립은 동문창업네트워크



동문창업네트워크 회장에 추대된 송은강 동문

초기부터 계획된 것으로, 회원 확보 및 관리와 소식지 발송, 연 1회 여는 동문창업네트워크 외에도 포럼과 세미나 개최를 주관한다. 모교는 우선 창업지원단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무국 설립을 추진할 운영진도 이날 선출했다. 서울대 동문네트워크 회장에 송은강(계산통계82-86) 캡스톤파트너스 대표가, 부회장은 창업 회원을 대표해 류정원(물리97-01) 힐세리온 대표가 추대됐다. 송은강 초대 회장은 동문창업네트워크를 설립 초기부터 다방면으로 지원했고, 벤처캐피탈 대표로서 당근마켓·직방·두나무·오늘의집 등 스타트업의 초기 단계에 과감히 투자해 '스타트업계의 키다리 아저씨'로도 불렸다. 송 회장은 "서울대에 창업을 했거나 준비하는 학생, 교원 등이 굉장히 많다. 벤처캐피탈에 있는 선배들이 모교와 협업해서 동문 창업기업의 정보를 VC나 투자자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동문창업네트워크의 기반을 잘 다지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류정원 부회장은

"자주 만나서, 어려운 점과 고민되는 것들을 나누자"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동문 창업자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뤄졌다. 미래와 소프트웨어 재단의 이상현 KCC 부회장,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정성인 프리미어파트너스 대표, 지성배 IMM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이 소속된 서울대 상대 투자자 모임 '세빛회'에서 거액을 후원했다. 또 변대규 휴맥스홀딩스 대표, 김석수 동서식품회장, 권오현 SNU홀딩스 이사회 의장, 최규남 SK수펙스추구협의회 회장, 세빛회 등에서 식사권을 재능기부, 주점을 통해 식사권을 받는 후배 창업자와 만남을 약속하기도 했다.

성공적인 창업 사례로 글로벌 농·축·수산물 무역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신호식(기계공학96-00) 트릿지 대표가 창업 경험과 비전을 들려준 데 이어 학생, 교원, 동문 창업자가 피칭 세션에서 자신의 창업 아이템을 설명했다. 이승아(법전원 19입) 레어리 대표는 AI 기반으로 얼굴형과 이목구비, 체형을 분석해 헤어, 메이크업, 패션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김수환(전기정보공학부 교수) 관악아날로그 대표는 다양한 센서 인터페이스 반도체를, 이혜성(의학16-20) 에어스메디컬 대표는 9개 국가 병원에 공급 중인 AI 기반의 MRI 촬영 가속화 솔루션을 소개했다. 유성환(전기공학03-07) 반프 대표는 스마트 타이어 시스템으로 타이어 안전 정보와 도로 노면 상태 정보

등을 분석해 제공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눈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테이블을 오가며 적극적으로 네트워킹에 참여해 행사에 활력을 더했다.

모교는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서울대 창업 4.0' 비전을 수립하고 혁신 창업 지원을 위한 학내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창업지원단을 중심으로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SNU벤처스 등 학내 창업 관련기구들이 협력해 '전주기 맞춤형 창업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시흥, 평창, 연건 등 멀티캠퍼스의 인프라를 활용해 개방형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창업휴학제도와 창업학점제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와 교원을 위한 휴(겸)직제도를 도입해 창업을 독려하고, 미국에서 열린 CES와 BIO USA에 참여해 모교의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지난달엔 바이오 분야 창업을 중심 주제로 'SNU 바이오 데이'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모교의 교원 및 학생 창업기업은 모교와 창업지원시설이 밀집된 '관악S밸리' 일대를 기반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민동주 창업지원단장은 "국내 유니콘 기업 30%는 창업자가 서울대 출신이며, 현재 교원 창업기업 150개 기업 중 14건이 IPO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동문창업네트워크가 제작 중인 동문기업 소개집에는 현재 100여 개 기업이 등록됐으며, 창업지원단에서 등록을 원하는 기업의 신청을 계속받고 있다. 박수진 기자

모교 단신



미술관 프레스코 벽화 전시

10월 12일 모교 미술관 앞 광장에서 개교 77주년을 기념해 선우항(서양화91-95) 작가가 제작한 대형 프레스코 벽화 '아테네 학당에의 경의' 개막식이 유희림 모교 총장, 박은실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을 비롯해 2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모교 음대 혼성 4중창단도 축하공연을 했다. '진리의 빛, 예술로 밝히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와외 설치작품 전시는 11월 26일까지 계속된다.

모교 공식 인스타그램, 10만 팔로워 달성

모교 공식 인스타그램(@snu.official)이 8월에 10만 팔로워를 달성했다. 학사 공지, 캠퍼스 생활정보, 주요 행사 등을 비롯해 캠퍼스 풍경과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채널이다. 모교 공식 유튜브 채널 또한 강의 시리즈 '샤로잡다'와 학교 근황을 알려주는 '월간 SNU' 등 다양한 콘텐츠로 현재 구독자 17만명을 넘어섰다.

관악수목원 26일간 가을철 시범개방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모교 농생대 관악수목원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6일간 시범개방한다. 비개방 수목원인 관악수목원은 지난해 모교와 안양시가 교류 협력을 체결한 이후 봄가을철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이번 개방기간엔 산림치유 프로그램(10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목공체험프로그램(10월 23일부터 11월 10일까지) 등을 운영한다. 오전 9시~오후 5시 개방하며 입장마감은 4시 30분이다. 문의: 031-8045-5018

재학생들 사로수길 불법전단 수거운동 벌여

최근 관악캠퍼스 인근 사로수길 일대에 유희업소 전단지 등 불법전단지가 무분별하게 배포되자 모교 재학생들이 직접 불법 전단지 수거 활동을 벌여 화제를 모았다. 이정빈(노어노문학과)·이민호(경영대) 씨 등 재학생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을 통해 불법 전단지 문제를 공론화하고 총학생회를 통해 관악구에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SNS와 오픈채팅을 통해 모집한 참여자들과 약한달간 직접 불법 전단을 주웠다.

동물병원, '헌혈건의 밤' 개최

수의대 동물병원(병원장 서경원)은 9월 7일 관악캠퍼스 동물병원에서 '2023년 빛나는 헌혈건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아픈 반려견에게 혈액을 제공한 헌혈견과 보호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모교에서 헌혈견과 보호자에게 선물과 기념품 등을 증정했다.

푸드테크학과 1기 석사학위생 배출

2021년 국내 최초로 개설된 농생대 푸드테크 석사과정은 8월 첫 학위생을 배출했다. 계약학과 형태의 푸드테크학과는 식품산업군 현장자를 대상으로 식품분야에 IT, 인공지능 등을 접목한 푸드테크 융합기술을 교육한다. 등록금의 65%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일부 학생 소속 기업에 현장 애로 해결 기술 지원비를 제공한다. 1기생들은 2년간 창업, 제품·기술 개발, 특허출원,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얻었다.

최창원 동문 운영 플라톤 아카데미 20억원 쾌척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가 지난달 모교 행복연구센터 연구교육사업 운영 기금으로 20억원 기부를 약속했다.

2010년 설립된 플라톤 아카데미는 최창원(심리83-89) SK디스커버리 부회장이 이사장을 맡은 인문학 연구지원 재단이다. 인문학을 심화하고 확산시킨다는 목적으로 인문학 연구를 지원하는 심화 연구 지원사업과 그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모교 사회대와 국제대학원 등에 지금까지 약 150억원을 기부했다. 최창원 이사장은 모교 법인 이사 및 발전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번에 기부한 모교 행복연구센터는 행복에 대한 과학적 탐구와 행복의 확산을 목적으로 초·중·고교생 행복교육과 행복문화콘텐츠사업, 모교 학생의



최창원 권석만

삶을 장기간 추적 조사하는 SNU중단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8월 29일에는 권석만(심리77-81) 심리학과 교수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장학금 1억원을 쾌척했다. 권 교수는 임상상담심리 전문가로 정서장애와 성격장애의 요인 및 치료법, 긍정심리학 등을 연구해왔다. "서울대에서 배우고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을 인생의 커다란 행운이자 축복으로 여긴다"며 감사의 뜻으로 장학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THE 세계대학평가 62위

영국의 대학평가기관 THE(The Times Higher Education)가 9월 27일 발표한 '2024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모교가 62위를 기록했다. 국내 대학 중 가장 높은 순위지만 2022년 54위, 2023년 56위에 오른 것에 비하면 다소 하락했다.

THE 세계대학평가는 △연구 품질(30%) △교육여건(29.5%) △연구환경(29%) △국제화(7.5%) △산학협력(4%) 등의 지표를 평가한다. 모교는 국내 대학 중 가장 높은 총점 73.4점을 받았다. 항목별 점수는 △연구품질 74.6점 △연구환경 75.3점 △교육여건 74.2점 △산학협력 수익 100점 △국제화 43.7점이다.

68위에서 55위로 상승한 교토대,



74위에서 57위로 상승한 중국과학기술대 등의 약진이 인접 순위권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 중국 대학은 칭화대 12위, 베이징대 14위 등으로 상위권 내에서도 순위가 상승했다.

국내 대학 2위는 세계 76위 연세대, 83위 카이스트였다. 전체 순위는 작년에 이어 옥스퍼드대가 1위를 지켰다. 스탠퍼드대가 2위, MIT가 3위에 올랐다.

“계란만 팔지 않아요, 축산업계의 구글이 될 겁니다”

황한솔 (체육교육99-03)
한솔루트윈 대표

친환경 난각 나노코팅 기술 개발 살모넬라·조류독감 안전 '맘란' 인기

“연구소 세우고 R&D(연구개발) 하는 양계장 보셨나요? 제 목표는 축산업계의 구글이 되는 겁니다.”

황한솔 한솔루트윈 대표를 키운 건 팔 할이 계란이었다. 40년간 산란계를 키우며 아들의 이름을 딴 ‘한솔양계장’을 운영했던 아버지. ‘양계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대로 아들은 자랐다. 모교 체육교육과에 입학해 석사학위까지 받고,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스포츠 빅데이터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포츠계 빅데이터 열풍이 막 시작되던 참에, 쓰일 곳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 양계장을 지키는 건 아들이다. 2017년 병환으로 쓰러진 아버지 대신 황 동문이 이어받은 것. 6년 사이 특허 기술 세 개, 유통센터와 부설 연구소까지 보유한 양계 기업으로 변모했다. 10월 11일 충남 당진 한솔루트윈 계란유통센터에서 만난 그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계란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기술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양계장은 여름엔 살모넬라균, 겨울엔 조류독감으로 비상이 걸린다. 양계장을 맡은 첫째 살충제 달걀 파동까지 발생해 계란 수급이 널을 뛰었다. “계란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잡고 싶었어요. 마침

카이스트 연구진이 식물에서 나오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을 이용한 물질을 과일에 뿌려 부패를 늦췄다는 기사를 보고 무작정 이메일을 보냈죠.”

해마다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계란이 문제가 되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 희석액으로 달걀을 세척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살모넬라균의 50%만 제거될 뿐. 최인성(화학87-91) 카이스트 교수와 계란을 대상으로 폴리페놀 코팅 기술의 항균 효과를 실험했다. 대상공이었다. “폴리페놀 나노코팅 기술로 달걀 껍질에서 대장균은 100%, 살모넬라균은 99.9% 제거됐고 2주 동안 균일한 신선도가 유지됐어요.”

첫 기술로 특허를 출원한 데 이어 올해 5월엔 같은 원천기술로 조류독감 바이러스를 없애는 소독과 항균 기술을 개발해 두 번째 특허를 냈다. 국제 학술지에 논문도 실었다. “조류독감 아니라도 5만마리 중 하루 5마리는 자연 폐사하는데, 우리가 개발한 소독제를 계사에 뿌리고 두 달간 키웠더니 하루 0.6마리로 줄더군요. 폴리페놀은 천연 물질이니 달걀에 뿌려도 먹는 데 문제 없죠. 다

른 식품에도 적용 가능성 높은 친환경 기술이에요.” 난각을 두껍게 만들어 신선도를 높이는 기술까지 개발했다.

기술 상용화를 위해 국비지원을 받아 계란유통센터를 짓고, 동탄에 연구소도 차렸다. 자체 농장을 포함해 협력농장 생산분까지 하루 30만개 계란에 폴리페놀 코팅제를 입혀 ‘맘란’이라는 브랜드로 출하한다. ‘안심 달걀’로 소문나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입점했다. 10구에 5000원대라는 낮은 가격에도 매출은 상향곡선. “주말이면 ‘맘란’을 파는 서울 마트를 찾아 직접 마이크 들고 관측도 한다”고 했다. “계란 파는 것보다 소비자 니즈 파악하려고요. 고객들께 ‘저번 계란은 어떻더라’는 얘길 들으면 품질 관리며 생산을 어떻게 할지 답이 나오거든요. 소비자의 요구는 올라왔는데, 생산과 유통도 그에 따라 가야죠.”

지난해 연매출 120억, 올해는 200억원을 바라보지만 늘 빠듯한 건 계란으로 번 돈을 고스란히 연구개발에 쏟아붓기 때문. 연구비 한 푼 나라에서 지원받은 적 없다. 기술의 우수성과 시

장을 인정받아 정책자금을 배정받아도, 막상 대출기관에 가면 기술은 보지도 않고 농업 회사는 담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기 일쑤다. 농식품 투자기업으로 모태펀드를 받았지만 일반적인 농업법인이 정책자금 지원을 받기란 불가능하다고 했다. “농업 기술이 저평가되는 거죠. 위에서 식량 자원 확보가 국가 어젠다가 되고, 대통령이 농산물 수출을 강조하면 뭐하나요. 밑으로 내려오면 그 문제를 해결할 농업 기술을 제도가 받쳐주질 않는데요. 농업 기업이 R&D 할 이유가 없죠. 미국에선 유사 기술이 빌게이트 재단의 지원을 받는데, 식품 안전과 식량 안보가 걸린 농업 기술을 등한시하는 게 답답해요.”

힘들다는 푸념 끝엔 입버릇처럼 “그래도 재밌다”는 말이 따라붙었다. “기술은 우리의 무기고 양계장은 테스트베드, 궁극적으로 양계업에 ICT와 빅데이터를 접목하고 싶다”고 했다. 떠나온 줄 알았는데, 데이터 전문가의 면모가 여전히 번뜩였다. “스포츠나 농업이나 데이터 비즈니스의 본질은 같으니까요. 지금의 조류독감은 터지고 나서야 관리를 하죠. 스마트팜을 구축해서 센서를 이용해 계사 주변 대기 흐름에서 바이러스를 감지하는 기술을 쓰면 조류독감도 사전에 막을 수 있어요. 그런 질병 관리부터 사료 공급, 마케팅, 가격 책정까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저에겐 신나는 일이지요.”

지난달 19일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형 양계기업 ‘파키흐 포울트리 팜즈’ 관

계자가 한솔루트윈의 기술에 관심을 갖고 당장까지 찾아왔다. 한솔루트윈이 친환경 난각 나노코팅 기술과 조류독감 예방을 위한 소독 솔루션을 제공하는 대신, 현지에서 기술 고도화를 지원받는 내용으로 MOU를 맺었다. 10월 말엔 황 동문이 사우디로 가서 현지에 한솔루트윈의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양계 시설을 구축하는 계획을 타진해볼 생각이야.

“계란 장사가 나중에 기술을 팔고, 데이터를 판다면 갭이 너무 커서 이해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투자자들 초차도요. 질병을 컨트롤하는 기술을 자발적으로 개발해서 특허를 냈고, 농장에서 테스트도 마쳤습니다. 계란은 전체 시장의 3% 점유가 목표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결국 기술을 수출하는 기업이 될 겁니다.”

황 동문은 “생각해 보면 아버지도 이것저것 실험을 많이 하셨다”며 “아버지가 말씀은 잘 안 하셔도 당신의 업적을 잘 이어가니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 스포츠 데이터 전문가로서도 그를 찾는 곳이 많다. 한양대 스포츠과학부 겸임교수로 출강 중이고, 충청남도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민 체육활동 증진 프로젝트를 자문하고 있다. 바쁜 와중에 최근 모교 푸드테크 최고위과정을 시작했다. 체고과 학생회장에 ROTC(41기) 출신이고, 별명이 ‘황대장’, ‘독사’. 폭심과 추진력을 짐작케 한다. 황 동문이 이끄는 한솔루트윈이 축산·데이터·ICT 등이 융복합된 친환경 항바이러스 기술로 울거울 침체된 양계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를 모은다. 박수진기자



“국가대표팀 공식 파트너, 선수들의 숙면 책임집니다”

서진원 (경영04-11)
베스트슬립 대표

특허받은 스프링 품질 자신 모교 축제에 8억 물품 후원

9월 12~14일 가을 축제 동안 대다수 학생들이 들고 다녀 눈길을 끌었던 물건. 베스트슬립에서 선물한 고품질 호텔 베개다. 행정관 앞 잔디마당 한편에 마련된 이벤트 부스에서 침대를 이용하는 자신의 모습을 찍어 SNS 계정에 올리면 끝. 간단한 응모 방법에 비해 선물은 무척 고급스러워 통학버스 탈 때 못 지않은 긴 줄이 연일 끊이지 않았다. 서진원 베스트슬립 대표는 축제 기간 내내 현장을 지키며 전두지휘했다. 9월 22일 서울 역삼동에 있는 베스트슬립 쇼룸에서 서진원 동문을 만났다.

“고품질이든 가성비 제품이든 좋은 침대나 매트리스를 찾다 보면 반드시 접하게 되는 게 저희 브랜드입니다. 그중 ‘릭슬립’이 대학생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요. 돌돌 말거나 3단으로 접을 수 있어 연구실이나 과방, 동아리방 같은 좁은 공간에 놓고 쓰기 좋죠. 그래서인지 모교 축제 전담기구인 ‘축하사’에서 축제 협찬 요청을 해왔습니다. 동문 기업인 줄은 모르고요. 타 대학에서도 후원 요청이 적지 않은 편인데, 모교 후배님들이라 정말 반가웠죠. 모교 사랑을 실

현할 기회다 싶어 축제 메인스폰서를 맡았습니다. 8억원 상당의 침구류를 후원했죠.”

학교에서 매트리스가 이렇게 요긴구나 싶게 베스트슬립의 후원은 학생들의 일상을 파고들었다. 잔디광장 한가운데서 열린 캠핑 행사 텐 토퍼 매트리스 37개를 대여해줘 맨땅 위에서 잠들었던 축제 참가자들에게 폭신한 잠자리를 선사했으며, ‘불쌍한 매트리스 공모전’을 개최해 새 매트리스의 절실함을 코믹하게 호소한 과방 및 동아리방 6곳을 뽑아 풀더블 매트리스, 베개 등 여러 침구류를 증정했다. 선정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은 물론, 치킨과 커피 기프트콘도 아낌없이 썼다.

“사업할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진정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항상 ‘진짜 이야기’가 힘이 있는 법이거든요. 단기간에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축제를 후원한 건 아니에요. 다른 학교 축제였다면 그저 성공한 기업인이 좋은 일만 한다는 정도로 끝나겠지만, 모교이기에 남다른 공감대가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선배가 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규모에 상관없이 되게 애정이 가고 응원하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후배님들도 선배가 만든 브랜드의 ‘진짜 이야기’를 궁금해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의 지원이 아닌 바야흐로 그런 진정성을 따르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베스트슬립의 전신은 서 동문의 부친이 창업한 아모스 침대. 1990년부터 주문 자위탁생산(OEM) 방식으로 수백만 개의 매트리스를 생산, 국내 유수의 가구 및 인테리어 업체에 납품했었다. 서 동문이 가업을 잇게 된 건 2011년 말.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면서 회사 위기에 처하자 아버지가 SOS를 쳤다. 면밀히 회사를 살펴본 서 동문은 2%대 마진율에 OEM 방식을 계속해선 직원들 월급도 못 올려줄뿐더러 회사 발전을 위한 재투자도 어렵다고 판단,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직접 판매에 도전했다.

“저희 회사는 사실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에 가깝습니다. 기술 개발해 특허도 내고 디자인도 직접 해왔거든요. 그런 까닭에 고품질의 매트리스를 유통마진 없이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유명 침대회사들이 저희가 납품한 매트리스에 상당히 큰 마진을 붙여 파는 시장 상황이었기에 신생 브랜드라도 좋은 매트리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서 2014년 베스트슬립을 런칭했죠.”

강남 소재 10평짜리 오피스텔에 모델 하우스처럼 쇼룸을 꾸며 대표가 직접 손님을 맞았다. 너무 작은 매장 규모에 당황하는 고객에게 회사의 진정성, ‘진짜 이야기’로 다가갔다. 서 동문은 처음 소매 판매했을 때 그 기억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그렇게 물건이 팔리기 시작해 10평짜리 쇼룸이 건물 한 층을 다 쓰는 규모로 확장됐고, 전국 33곳 직영점으로 확대됐다. 경기 지역에 쇼룸은 수백 평 규모에 달한다.

베스트슬립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 1만5040개 매트리스를 납품했고, 이듬해 열린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매트리스 제작업체로 선정됐다. 지난 10월 8일 폐막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공식 파트너로서 선수들의 숙면을 책임졌다. 유명 대기업 일색이던 팀코리아 공식 파트너

에 베스트슬립이 뽑힌 건 예전부터 직접 써본 선수들의 강력한 지지 덕분. 지난해 결혼한 체조요정 손연재가 흔쾌히 브랜드 모델로 나선 이유기도 하다. 손연재는 베스트슬립 매트리스에서 자고 일어나 치른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땀다.

서 동문은 품질력과 가격경쟁력을 기반으로 한국 시장을 넘어 세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매트리스는 처음엔 대부분 좋아 보입니다. 품질의 차이는 내구성에 있어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죠. 베스트슬립은 최장 25년까지 AS를 보장합니다.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죠. 최상위급 매트리스인 Z시리즈(Zenith of comfort) 기준으로 5172개의 특허출원 스프링이 들어갑니다. 타사 제품보다 5배 이상 많아 그만큼 더 안락하게 몸을 받쳐줘요. 하이원 그랜드 호텔, RAMADA, RYSE, 제주 KAL, 오션스 위즈 호텔, 북한의 금강산등 5성급 호텔 100여 곳에 저희 제품이 들어갑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을 내 집에서 누릴 수 있죠. 50만 원대 가성비 제품도 훌륭하고요. 요즘 사람들 건강을 위해 음식도 가려 먹고 운동도 신경 쓰는데 상대적으로 잠엔 소홀합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요소가 잠인데도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에 투자하세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나경태기자

동문맛집

비싸서 쉽게 못 먹는 민어·홍어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곳

함운경 (물리82-91) 군산 '네모선장' 대표

손님이 개점 요구해 차린 횡집 수산물 밀키트 온라인 판매도

함운경 동문은 모교 재학 중이던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해 투옥된 적 있는, 삼민주(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투쟁위원회)의 위원장이자 586운동권의 상징이다. 1988년 석방 후에도 운동권에 남은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두 번 더 옥살이 했고, 재야 사회운동에 매진하면서 여러 차례 정계 진출에 도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 그가 전북 군산으로 귀향해 횡집을 열었다. 2021년 12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방문하기도 했다. 함운경 '네모선장' 대표를 전화와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네모선장은 식당 겸 제철수산물 가공 유통업체입니다. 원래는 유통을 전문으로 할 생각이었는데, 자본력이나 고객 확보, 판로 개척 측면에서 기존 상인에 비해 경쟁력이 많이 부족해 가공 쪽으로 눈을 돌렸죠. 여러 시도를 해봤는데, 생선회를 필렛(고기나 생선의 뼈 없는 조각) 형태로 판매하는 방식이 주효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니 와서 먹을 수 없다는 문의가 쏟아졌고, 그러한 요구에 부응해 횡집도 차리게 됐죠.”



2017년 수산업계에 진출, 가공 분야에 주목한 함 대표는 요리 못하는 사람들이 쉽게 생선탕을 끓여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 곧장 실행에 들어갔다. 오늘날 대중화된 밀키트를 그때 이미 시작한 것. 대형 유통 플랫폼과 합작해 대량생산했다면 큰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타이밍을 놓쳤다. 밀키트에 흔히 들어가는 액상소스 대신 냉동육수를 고집했기 때문. 사소해 보이지만 유통 방식을 간소화하는 데 장애가 되면서 사업 기회를 잃고 말았다. 그러나 네모선장의 밀키트는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직접 사서 먹어본 소비자의 별점은 모두 5점 만점이다.

“네이버에서 네모선장을 검색하면 저희 가게 스마트스토어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홍어탕·민어탕·아귀탕·복어탕 등 다양한 탕 요리와 민어·홍어의 숙성회, 광어회, 제철수산물로 가을 꽃게와 생물오징어 등을 판매 중이에요. 선물용으로 부세굴비와 박대 세트

도 출시했습니다. 박대는 군산의 특산물로, 이곳 출신 탤런트 김수미씨가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한 적 있죠. 살점이 쪽 찢기는 까닭에 가시 바를 필요가 없어 아이 키우는 주부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곰국처럼 국물이 우러나는 민어탕은 오래 끓이면 죽처럼 풀어져 환자나 어르신들에게 그만이지요.”

명절 선물세트도 네모선장의 효자 상품. 개업 초창기, 멀치 추석 선물세트는 함 동문에게 초심자의 행운을 안겨줬다. 남들이 잘 안 하는 기획 상품이라 한철에 5000만원어치 매상을 올렸던 것.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다른 업자들이 안 하는 이유를 알게 됐다. 수산물 특성상 들어오는 물량이 들쭉날쭉했고, 일일이 박스 포장하는 것 자체가 고된 노동이라 적지 않은 인건비가 들었다. 주문 물량을 맞추기 위해 식구들이 모여 앉아 밤새 포장을 하는 일도 잦았다

고. “일정치 않은 수산물 공급은 밀키트를 만드는 데도 영향을 끼칩니다. 수요를 제때 반영

하기 어렵거든요. 취급 어종을 대량으로 쌓아놓고 있어야 가능한데 자본력이 달려 쉽지 않아요. 국산 수산물로는 더 힘들고요. 대형 마트에서 취급하는 밀키트 대부분이 수입 수산물을 쓰는 이유죠. 매출 비중은 온라인 판매가 더 큼니다. 횡집도 열심히 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려고 노력 중이에요.”

수산물 판매하다 차린 식당을 맛집으로 소개하자니 좀 겸연쩍다는 함운경 대표. 굴곡진 삶을 살아오는 동안 설움도 아쉬움도 컸을 법한데 즉문즉답, 어떤 질문이든 앞뒤 재지 않고 정직하게 답했다. 네모선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스기 다시 많이 나오는 횡집도, 특별한 음식으로 승부를 거는 식당도 아니라고 하면

서다만, 비싸서 쉽게 못 먹는 민어회, 홍어회를 합리적인 가격에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로 인한 고충을 물었을 땐 “이미 12년 전 지금보다 더 엄청난 양의 방사능이 바다로 흘러들었지만, 우리 바다의 수산물은 여태 별 지장 없이 잘 먹었다”며 “6개월만 지나면 이런 난리도 곧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니 빨리 시간이 지나가길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소설 ‘해저 2만리’의 주인공 ‘네모선장(Captain Nemo)’에서 가게 이름을 따왔습니다. 네모 선장은 잠수함을 타고 다니며 세계 여러 나라의 괴압박민을 돕는 인물이지요. 살아오는 동안 저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중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지역 재단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공부했고, 정치해보겠다고 출마하면 시민들이 후원금을 건어줬습니다. 횡집한다고 할 땐 이웃들이 주식 회사를 만들어 도와줬고요. 받은 은혜 다 돌려주고 죽는 게 제 꿈입니다. 제가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남기고 싶어요.” 단체 50명까지, 넓은 주차장 확보. 포장 및 배달 가능. 나경태기자 문의 063-463-8846



화제의 동문 유튜버

'김주환의 내면소통' 김주환 (정치82-86) 연세대 교수

“명상도 양치하듯 습관화 하세요”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몸의 근육처럼 마음근력도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 강해진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김주환 연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내면의 힘'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설득해왔다. 국내에 '회복탄력성' 개념을 처음 소개하며 동명의 베스트셀러 책을 냈고, 목표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힘인 '그릿(GRIT)'을 주제로 책을 내 또 한번 열풍을 일으켰다. 연세대 야구부에서 명상 훈련을 시키는 멘탈 코치로도 알려졌다.

그런 그가 10여 년간 연구 끝에 '내면소통'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김 동문은 “회복탄력성”, ‘그릿’ 같은 성취 역량도 마음근력이 있어야 발휘된다”고 말한다. 마음근력을 향상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훈련법이 명상이고, 명상의 본질이 바로 내면소통. 갈래는 명상이지만, 종교나 신비주의가 아닌 뇌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올해 출간한 책 '내면소통'에 앞서 유튜브 '김주환의 내면소통'에서 수년간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명상과 훈련법을 소개해 14만여 구독자를 모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감정은 마음이나 생각이 아닌 몸과 행위의 문제, 일종의 몸의 움직임”이다. 멧돼지가 나타나면 몸이 굳고, 시험을 생각하면 배가 아픈 것은 '몸의 변화'이며, 이것을 뇌가 추론하고 해석함으로써 두려움과 불안을 느낀다는 것. 이러한 감정은 생각으로 컨트롤 할 수 없다. 그보다 뇌의 기본적인 작동방식을 잘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해 감정을 가라앉히는 '편도체 안정화', 마음과 느낌에 집중하는 '전전두피질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서, 수용, 존중, 감사 훈련'이 전전두피질 활성화를 위한 정적인 성격의 명상이라면, '메이스벨', '페르시아 밀' 등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고대의 진자 운동법이나 태극권 등은 '움직임 명상'으로 편도체 안정화를 훈련하는 방법이다. 쿤달리니요가 전문가 과정을 수료하고 국제 케틀벨 코치(레벨 1)와 대한 우슈협회 우수(태극권) 7단 자격을 가진 김 동문이 이따금 직접 운동 시범을 보이기도 한다.

김 동문은 고교 시절 장자와 반야심경에 심취해 명상 수행을 시작했고, 대학 때는 암자 생활도 했다. 그는 “양치질이 라는 새로운 습관이 인간의 보편적 행동양식으로 자리 잡았듯, 명상 수행도 그렇게 되어 현대인의 몸과 마음의 건강에 큰 도움을 줄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학습과 훈련의 효과는 잠자는 동안 뇌에 저장되기 때문에, 자기 전 10분씩 유튜브를 보면서 내면소통을 훈련할 것을 권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채널에서 라이브 강의를 연다. 박수진기자

삼익문화재단과 함께하는

오페라 하우스

Samick Opera House

2023년 10월 ~ 12월 (매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일자	작곡가(연주자)	제목(내용)	장르 리닝 타임
10/2	임시공휴일	휴관	
10/9	한글날 공휴일	10/12(목) 11:00-13:00 11시 콘서트	장소: 서초동 예술의 전당
10/16	구노	파우스트	오페라 180분
10/23	김순향 소프라노 외	슈베르트 가곡 연주회	Live concert 100분
10/30	모차르트	후궁으로부터 탈출	오페라 158분
11/6	베르디	팔스타프	오페라 125분
11/13	베토벤	피델리오	장슈필 150분
11/20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오페라 130분
11/27	이은숙 바이올리니스트 외	현악 4중주	Live concert 100분
12/4	잔도나이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오페라 120분
12/11	베토벤/베르디	교향곡 5번/레퀴엠	콘서트 31 + 83분
12/18	푸치니	라 보엠	오페라 124분
12/25	공휴일	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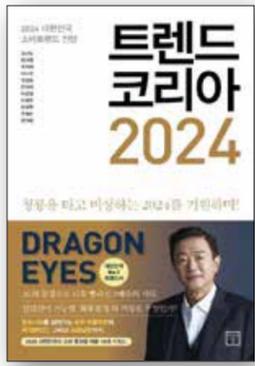
* 무료 상영, 다과비 별도 (분기 10만 원, 월 4만 원, 또는 회당 14,000원)
* 사전 예약 문의 : 010-5290-0273 박용대 관장
*** 기관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시간 변경 가능

삼익문화재단 삼익아트홀 (7호선 학동역 6번출구 50m 삼익학기빌딩 3층)

(DRAGON EYES)

김난도 교수 “2024년 키워드는 드래곤 아이즈”

화제의 책



트렌드 코리아 2024

김난도(사법82-86) 모교 소비학과 교수 외 미래의 창

10월 5일 ‘트렌드 코리아 2024’가 출간됐다. 김난도 동문은 모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원들과 2008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소비트렌드를 예측한 책 ‘트렌드 코리아’ 시리즈를 펴내고 있다. 올해도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 진입했다. ‘트렌드 코리아’는 매년 그해의 피동물이 들어가도록 키워드를 정하고 그해의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한다. 청룡의 해인 내년의 키워드는 바로 ‘드래곤 아이즈(DRAGON EYES)’다.

분초사회(Don't Waste a Single Second: Time-Efficient Society) 1분 1초가 아까운 세상이다. 단지 바빠서가 아니다. 소

유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 이행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볼 것, 할 것, 즐길 것이 너무 많아졌다. 초 단위로 움직이는 현대 플랫폼 경제에서 시간의 밀도가 높아지며, 우리는 가속의 시대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호모 프롬프트(Rise of 'Homo Promptus') 프롬프트는 AI에게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 인간이 던지는 질문을 뜻한다. 인간이 어떤 질문을 하나에 따라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달라진다. AI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화룡점정’의 역량은 사색과 해석력을 겸비한 인간만의 것이다.

육각형인간(Aspiring to Be a Hexagonal Human)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등등 모든 것에서 하나도 빠짐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육각형인간’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강박적인 완벽함의 반향으로 작용한다. 육각형인간 트렌드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흔들리는 사회를 살아야 하는 젊은이들의 활력이자 절망이면서 하나의 놀이다.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Getting the Price Right: Variable Pricing) 오늘날 ‘일물일가’의 법칙은 사라졌다. 소비자의 지불 의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빅데이터의 활용과 실시간으로 모든 변수를 측정해내는 AI의 발달은 시간, 장소,

유통 채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일물N가’의 세상을 열었다. 이제 ‘최저가’가 아니라 ‘최적가’가 중요해지고 있다.

도파밍(On Dopamine Farming) 재미는 늘 인간의 화두였지만 요즘만큼 재미를 좇는 일이 일상이 된 적은 없었다. 게이머가 ‘파밍’하며 아이템을 모으듯, 사람들은 재미를 모은다. 영똥하고 기발하고 지극히 무의미한 일들이 주목을 끈다.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가 범람하는 오늘날 도파밍은 피할 수 없는 추세다.

요즘남편 없던아빠(Not Like Old Daddies, Millennial Hobbies) 결혼이 인생의 가장 큰 선택이 된 오늘날, 결혼 후 남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전에 없이 달라졌다. 권위적 가정에서 평등한 동반자로 역할이 바뀌어 가는 ‘요즘남편’,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6시 신데렐라’를 자처하는 ‘없던아빠’들이 소비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스핀오프 프로젝트(Expanding Your Horizons: Spin-off Projects) 비교적 저예산과 유동적인 전략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도해보는 스페인오프는 기업 입장에서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고, 성공할 경우 예상 밖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인들도 커리어 개발을 위해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변화의 시

대, 스페인오프는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디토소비(You Choose, I'll Follow: Ditto Consumption) ‘나도’라는 의미의 ‘Ditto’가 소비 현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나의 가치관과 취향을 오롯이 반영하는 사람, 콘텐츠, 유통 채널의 선택을 따라하는 디토소비는 구매 의사결정에 따르는 복잡한 과정과 시간을 건너뛰어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FOBO, 즉 실패의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손쉬운 방법, 디토소비가 뜬다.

리퀴드폴리탄(ElastiCity, Liquidpolitan) 인구는 감소하고 광역 교통은 발달하는 현대사회에서 유목적 라이프 스타일을 구가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지역은 이제 하나의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이동하고 흐르는 유연한 모습을 보인다. 정주인구보다 관계인구에 방점을 찍는 유연도시 리퀴드폴리탄이 주목받는다.

돌봄경제(Supporting One Another: 'Care-based Economy') 인간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초개인화하는 나노사회, 1분 1초가 아쉬운 분초사회에서, 돌봄의 시스템화가 중요해졌다. 돌봄은 이제 단지 연민이 아닌 경제의 문제다.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른 사회적 약자들만이 그 대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김남주 기자

EXHIBITIONS

김홍석 개인전: 속옷을 뒤집어 입은 양복과 치마를 모자로 쓴 드레스

11월 10일까지 서초구 스페이스 이수



김홍석(조소83-87) 동문은 개념적 성격이 강한 영상, 퍼포먼스, 설치 작업을 통해 미술에 대한 선입견을 깨는 작업을 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도 극사실 인체 조각, 추상 조각,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텍스트, 회화 등 다채로운 매체의 작업들로 우리가 알던 미술의 형상과 개념을 전복시킨다.

문의: 070-7737-7067

연기백-얇음과 일어섬의 상(象)에 대하여

11월 5일까지 종로구 김종영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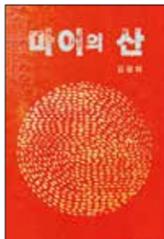


김종영미술관이 2023년 ‘오늘의 작가’로 선정한 연기백(조소93-00) 작가의 개인전. 연 동문은 일상의 다양한 오브제로 독특한 설치작업을 선보여왔다. 2014년부터 수집한, 버려지고 주변화되며 근현대를 지나온 실제 사물을 소재로 조각, 설치, 사운드 작품 등을 선보인다. 문의: 02-3217-6484

BOOKS

마이의 산

김광휘(국어교육60-64) 전 방송작가 해맞이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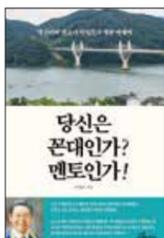


‘웃으면 복이와요’, ‘제4공화국’, ‘격동50년’ 등을 집필한 방송작가 김광휘 동문이 베트남전 참전 체험소설 ‘마이의 산’을 펴냈다.

이전에 썼던 ‘호지명의 딸’, ‘귀인’의 완결편인 셈이다. 30년 전 이 소설의 초간본을 읽은 고 이문구 소설가는 “이 작품에서 거듭 빛나는 부분은 편집되지 않는 현장성과 작가의 체취가 살아 있는 생생한 문장이다. 작품의 깊이가 작가의 체험의 폭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그는 우리 앞에 당당히 입증하고 있다”고 평했다. 베트남전의 참혹함, 베트남의 아픈 현대사는 물론 그들의 생활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당신은 끈대인가? 멘토인가!

박영목(해양75-79) 법률사무소 아크로 대표변호사 / 행복에너지



박영목 동문이 살아오면서 느끼는 삶과 죽음에 관한 생각을 정리했다. 공직 근무와 변호사로 일하는 동안 보람있었던 일들과 자작시 몇 편도 곁들였다. 박 동문은 행정·사법 양 고시를 합격하고 서울시 해양수산부를 거쳐 경찰 총경으로 근무했으며, 청와대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에서 일했다. 수상스키, 스노우보드, 패러글라이딩, 윈드서핑, 국궁 등에 능숙하며, 손재주가 남달라 별명이 ‘박가이버’다.

낭형당 만필

차배근(국어교육60-65) 모교 명예교수 늘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언문학자인 차배근 동문이 2007년 8월 말 정년퇴임 후 경기도 화성 괴랑리에서 농부의 삶을 시작하며 쓴 글들을 엮었다. 차 동문은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산골짜기에, 동네와는 꽤 떨어진 독립 전원가옥에 침거 중인 나에게 요즘은 유일한 대화상대는 나보다 네 살 연하인 머리털 하얀 내자뿐이다. 주로 밥상머리에서 이야기, 저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걸 글로 쓰고 싶은 생각이 간혹 든다. 그래서 소일(消日) 삼아 틈틈이 끄적여 보았다. 난생처음으로 콩트라는 것도 써보았고, 엽편소설이라는 것도 써 보았다.”

위험한 일본책

박 훈(동양사84-89) 모교 역사학부 교수 어크로스



일본 근대사 권위자 박 훈 동문이 막연한 혐오와 적대감을 견어내고 일본과 한일 관계를 새롭게 바라볼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박 동문은 혐한과 반일이라는 왜곡된 렌즈를 내려놓고 한국과 일본의 근대,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나아가 천황제 문제까지 실제 역사의 내용과 의미를 냉철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의 상호 인식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은 무엇일까? 등 한·일 간 첨예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다.

타우마제인

이한구(철학64-68) 재)타우마제인 이사장 캐럿하우스출판사



이한구 동문이 인문·철학잡지 ‘타우마제인’ (계간)을 출간했다. 타우마제인(Thaumazein)은 경이로움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 말이다. 이번 창간호에는 경이로운 존재들을 주제로 24편의 글이 실려 있다. 우주에 존재하는 아름답고 신비한 천체의 다양한 모습, 우주 속의 오아시스 지구, 호모사피엔스 등 경이로운 자연 세계를 다루고 있다. 또한 문명을 향한 위대한 도박인 농업혁명, 현실을 넘어 추상의 영역을 연 ‘0’의 발명, 대한민국의 근대화 성공, 역사를 전진시킨 여러 혁명들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인류의 경이로운 발전과 노력을 살펴본다.

해양안보와 미국의 외교정책

장성일(대학원07-09) 모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 이조



책은 해상수송로 안보와 미국의 외교정책(군사력 사용 결정)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미국이 냉전기 해상수송로 안보 위기 상황에서 어떤 과정으로 군사력의 사용을 포함해 다양한 선택지를 최종 선택했는지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을 설명한다. 장성일 동문은 이를 위해 존슨, 닉슨 및 레이건 행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위기 대응 조직의 조직을 활용하며, 미국 정책결정자들의 논의 과정을 추적한다.

길 잃은 나의 조국

홍경표(의학72-78) 성균관대 명예교수 오래



북한, 외교, 언론, 식량과 물, 건강과 환경 등 모두 19개의 장으로 이뤄져 있는 이 책의 각 장 제목을 보면 의사인 홍 동문의 폭넓은 관심사와 인류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느낄 수 있다. 각 장의 무거운 주제를 다루며 조선왕조실록, 도덕경, 맹자 등의 지혜를 담은 발상은 신선하다. 홍 동문은 “국가 체무의 심각한 증가와 출산율의 무서운 저하는 머지않아 국가와 민족의 존폐를 위협하는 시점에 이르렀다”며 “자신의 위치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이 책을 통하여 돌이켜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고 밝혔다.

미래를 제시하는 리더의 한마디

이의현(AIP 20기) 대일특수강 대표 외 행복에너지



인생의 뚜렷한 목표를 갖고,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안내한 200여 명의 세계적 리더들의 한마디를 통해, 우리가 자신의 인생과 능력에 확신을 가지고 삶을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 책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일본 머스크 테슬라 CEO, 도요다 아키오 도요타자동차 회장 등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들의 한마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한다.

CONCERTS

콰르텟21 제60회 정기연주회

11월 25일 서초동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첼리스트 박경옥(기악77-81·사진) 동문이 활동하는 콰르텟 21은 1991년 창단한 이래 베토벤 현악4중주 전곡, 브람스 현악4중주 전곡 시리즈 등에 도전하며 대중에 실내악과 현악4중주의 매력을 알려왔다. 매년 5월과 11월 정기연주회를 열고 있다.

문의: 02-586-0945

브로콜리너머 콘서트-하남

11월 11일 하남시 하남문화예술회관 대극장



2005년 결성된 ‘브로콜리너머’는 모교 노래 ‘메아리’ 출신 덕원(윤덕원·인문정보01-07)과 잔디(김잔디·간호02-07), 류지호 구성된 3인조 밴드다. 청춘과 삶을 이야기하는 가사와 담백한 사운드로 사랑받으며 ‘보편적인 노래’, ‘앵콜요청금지’, ‘유자차’ 등 많은 히트곡을 냈다.

문의: 031-790-7979

동정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인사, 수상, 행사, 결혼 등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30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신문에 게재됩니다.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이메일 news@snu.ac.kr 전화 02-886-2219 팩스 02-886-2218

인사

김충환(정치73-77 전 국회의원) 9월 4일 사단법인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제2대 이사장에 취임.

김동철(법학74-78 전 국회의원) 9월 20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취임.

김창기(외교74-81 전 관훈클럽정신영기금 이사장) 9월 22일 재단법인 조선일보 미디어연구소장에 선임.

김진국(정치78-85 전 중앙일보 대기자) 9월 14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금석좌교수에 선임.

김창범(영문78-82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 9월 18일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에 선임.

황인자(대학원78-82 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 8월 30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에 임명.

최기화(동양사81-88 전 MBC 기획본부장) 9월 7일 EBS 감사에 임명.

이종엽(공법83-87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9월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

정은경(의학83-89 전 질병관리청장) 9월 6일 모교 의대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임용.

양희동(경영84-88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 9월 18일 한국경영학회 차차기 회장에 선출.

박병환(경영87-94 국제청 감사담당관) 8월 초 국제청 정세송무국장으로 승진.

김혜진(간호88-92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10월 3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

조성현(AMP 80기 HL만도 수석사장) 8월 17일 HL그룹 부회장에 선임.

염종선(영문86-91 창비 상무이사) 9월 30일 출판사 창비 신임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

이지은(서양화86-90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 최근 제17대 서양미술사학회장에 취임.

강형구(경제91-95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 9월 25일 한국재무관리학회 차기 학회장에 선출.

김문식(경제94-0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장)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으로 승진.

김이동(경영96-01 삼정KPMG 부대표) 9월 14일 삼정KPMG 재무자문부 대표로 임명.

신수정(기약59-63 모교 명예교수) 9월 13일 한양대 백남기념회가 수여하는 2023년 제6회 한양백남상(음악 부문) 수상자에 선정.

최홍규(교육대학원 65-68 중앙대 명예교수) 9월 12일 정찬우 시집 '달빛에 띄운 연정'을 영역해 한국미래기념문학회가 수여하는 제7회 번역문학상 받음.

임현진(사회67-71 모교 명예교수) 9월 18일 제19회 경암상(인문사회) 수상자에 선정.

최병인(의학68-74 모교 명예교수) 9월 18일 대한민국의학원이 수여하는 제68회 학술원상(자연과학응용부문) 수상.

박상일(물리77-81 파크시스템스 대표이사 사장) 9월 13일 한양대 백남기념회가 수여하는 제6회 한양백남상(공학 부문) 수상자에 선정.

정연만(사회교육 79-83 전 환경부 차관) 8월 25일 서울시 명예시장(환경 분야)에 선정.

김태욱(SGS 11기 시호비전그룹 회장) 9월 19일 대한안경사협회가 주최한 제34회 안경사의 날 행사에서 특별공로상 수상.

김갑유(사법81-85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 8월 30일 한국중재대상(국제 중재 부문) 수상.

최주선(전자공학 82-86 삼성디스플레이 대표) 9월 21일 열린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에서 디스플레이 업계 첫 금탑산업훈장 받음.

신영수(전기87-94 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10월 4일 '반도체 리소그래피' 최적화 기술로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에 선정.

신현철(AIC 49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9월 6일 고양시 공무원이 뽑은 '베스트 시의원' 상 수상.

강재훈(한대원96-98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교수) 9월 5일 제27회 직업능력의 달 행사에서 직업훈련교원분야 대통령표창 수상.

주영석(의학01-07 KAIST 의과대학원 교수) 9월 18일 제19회 경암상(생명과학) 수상자에 선정.

김두리(화학02-06 한양대 화학과 교수) 9월 5일 제6회 한국도레이 펄로십 수상자에 선정.

한경원(조지아공대 12졸 모교 기계공학부 조교수) 10월 4일 국제 여성 로봇틱스 학회에서 2023년 '50 Woman in Robotics'에 선정.

김용원(법학59-64 삶과꿈 대표) 11월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운심석면에서 '김용원 여행스케치전' 개최.

박재호(회화59-63 경희대 명예교수) 10월 20일~30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자율추상전' 개최.

김재철(AMP 4기 동원그룹 명예회장) 9월 19일 인공지능 산업발전과 기술 인재양성에 공헌한 공로로 한양대 명예공학박사 학위 받음.

전영애(독문69-73 모교 명예교수) 최근 독일 그림형제의 1857년작 '그림동화' 200편 공동 번역, 민음사 출간.

최연혜(독문75-79 한국가스공사 사장) 8월 18일 한국가스공사 창립 40주년 기념식에 새 비전 선포.

이종환(AMP 7기 삼영화학 창업자) 9월 13일 별세(100세)

김창순(경성여자사범43입) 9월 5일 별세(99세)

한덕룡(약학52졸 중앙대 명예교수) 9월 18일 별세(97세)

강신호(의학46-52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 10월 3일 별세(96세)

김남조(국어교육47-51 시인) 10월 10일 별세(96세)

이상렬(농학50-55) 9월 7일 별세(92세)

김명기(법학54-58 명지대 명예교수) 9월 1일 별세(87세)

주진학(법학54-58 전 한양법통법률사무소 변호사) 9월 4일 별세(87세)

서병호(사회57-61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9월 23일 별세(85세)

이상희(약학62-66 전 과학기술처 장관) 9월 13일 별세(85세)

김태완(ACAD 44기 총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회장) 9월 23일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총무공김시민장군 탄신제 469주년 기념식 개최.

이기원(성악76-80 성악가) 10월 19일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소프라노 이기원 독창회' 개최.

김동욱(경제78-82 모교 행정대학원 교수) 9월 20일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23'에서 이민정책 관련 주제 강연.

박민식(외교84-88 국가보훈부장관) 10월 4일 (재)이승만대통령 기념 재단에 모친, 아들과 함께 1000만원 기부.

허원순(미학84-90 한국경제신문 수석논설위원) 8월 22일 관훈클럽 언론인저술 지원 대상자에 선정.

이승만(대통령 기념 재단)에 모친, 아들과 함께 1000만원 기부.

상가 명복을 빕니다

- 이종환(AMP 7기 삼영화학 창업자) 9월 13일 별세(100세)
- 김창순(경성여자사범43입) 9월 5일 별세(99세)
- 한덕룡(약학52졸 중앙대 명예교수) 9월 18일 별세(97세)
- 강신호(의학46-52 동아쏘시오그룹 명예회장) 10월 3일 별세(96세)
- 김남조(국어교육47-51 시인) 10월 10일 별세(96세)
- 이상렬(농학50-55) 9월 7일 별세(92세)
- 김명기(법학54-58 명지대 명예교수) 9월 1일 별세(87세)
- 주진학(법학54-58 전 한양법통법률사무소 변호사) 9월 4일 별세(87세)
- 서병호(사회57-61 전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9월 23일 별세(85세)
- 이상희(약학62-66 전 과학기술처 장관) 9월 13일 별세(85세)
- 길희성(철학61-65 서강대 명예교수) 9월 8일 별세(80세)
- 신원선(언어62-66 전 신영외국어감사) 9월 19일 별세(80세)
- 이경수(기계공학81-85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9월 10일 별세(61세)

1 듀오 결혼정보업계 1위
(2022년 매출액 기준)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듀오

결혼정보업계 1위
(2022년 매출액 기준)

성혼수 46,848명
(2022년 4월 12일 기준)

회원수 36,199명
(2023년 6월 12일 기준)

전문직 5,135명
(2022년 11월 비임원 기준)

한국대표 결혼정보회사

1577 8333

결혼총기업 신고번호: 41남080031

고문	
△안병훈 법대 57	△장충식 사대 51
부회장	
△강동철 미대 83	△남인용 사회대 86
△박상혁 공대 69	
평생회비-이사	
△이화령 가정대 77	△하태권 공대 06
평생회비-일반	
△강동철 미대 83	△공준혁 사회대 96
△구상욱 FIP 13	△구승희 AMP 77
△권영환 KFL 26	△김계희 의대 84
△김길태 차대 65	△김미선 사대 17
△김성자 사대 71	△김소이 음대 11
△김연학 법대 92	△김유석 문리대 55
△김철규 법대 55	△김하람 공대 17
△김현우 공대 96	△노동현 사대 03
△맹준영 법대 94	△민은기 음대 82
△박경빈 음대 19	△박상욱 법대 75
△박승재 자연대 16	△박영환 법대 75
△박정규 인문대 93	△박유세 KFL 26
△박준규 사대 71	△서유미 사회대 98
△신승철 공대 54	△신연수 법대 01
△심강희 SGS 26	△심재운 공대 97
△안병영 농대 77	△안월환 경영대 90
△오인환 미대 84	△이선자 가정대 69
△이영식 사대 73	△이유리 간호대 99
△이충현 법대 07	△이지원 행대원 20
△이창훈 공대 77	△이혜민 미대 12
△이희정 법대 85	△전기연 사회대 09
△정용호 약대 71	△정정진 KFL 26
△조유진 보대원 21	△조지현 음대 86
△주문진 자연대 03	△주성종 공대 20
△최영은 간호대 00	△최진환 농대 72
△최한돈 법대 84	△최항미 AMP 82
△한정원 사대 90	△허명렬 공대 55
△현상민 의대 98	△홍승만 자연대 17
△홍원희 수의대 07	△홍재훈 사회대 77
연회비-이사	
◆인문대 △강현주 93	△최종민 83
◆사회대 △조인선 97	△해밀튼 10
◆경영대 △반용을 77	
◆공대 △김선복 62	△김한철 74
△신재철 66	△이창범 77
△최도철 87	△최재성 75
◆농생대 △손정대 76	△신경준 76
△이승겸 75	△한광일 03
◆문리대 △박학진 67	△임연철 68
◆의대 △김 숙 69	△노장기 59
△이재철 70	△전우정 88
◆사대 △김천수 58	△설동균 68
△현성준 78	△홍우림 04
◆상대 △송국현 56	△최경식 59
△최기동 70	
◆가정대 △염영경 78	
◆수의대 △김남식 83	
◆약대 △김의영 80	△최진근 77
◆음대 △김숙이 73	
◆치대 △손일수 71	△이윤상 59
△이진걸 77	
◆대학원 △문형근 79	△박성호 95
◆신대원 △김정환 76	
◆AMP △문정국 31	
◆AIP △김성길 07	
◆ACAD △설상영 88	
◆ABP △이판철 03	
◆SGS △김승규 07	
◆APC △조의상 16	
◆HPM △권기진 08	△김찬진 29
△이철희 04	△정성호 06

보내주신 사랑, 역사가 됩니다

보내주신 귀한 회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자랑스러운 44만 서울대인의 새 역사 창조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고문·자문위원·회장단·특별과장·동창회장·논설위원·평생회비·연회비·지부부담금 등 : 2023. 8. 24 ~ 2023. 9. 23
 성명 오른쪽 숫자 : 입학 연도(미확인시 졸업 연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비 납부 방법

구분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일반회원	10,000원	50,000원	500,000원 (65세 이상은 300,000원)
이사회원		150,000원	-

회비 납부하시면

- 매월 총동창신문 제공 ○익년도 탁상달력 제공
- 경조 서비스 이용 ○건강검진 우대

- 입회비는 입회 시 한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회비와 평생회비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납부해 주십시오.
- 지로 : 지로용지를 가까운 금융기관의 공과금 자동화기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은행계좌 : 다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성함, 학과, 입학 연도를 같이 표기 바랍니다)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농협 079-01-442414 신한 140-001-180304
 우리 1005-401-137376 국민 827-01-0248-009
- 신용카드 : www.snua.or.kr 첫 화면 오른쪽 중간 '동문회비·후원금'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도 사용 가능)

◆AFB △채목호 18	△이종호 69	△최세운 01
◆AMPFRI △이유인 07	◆사대 △김경래 01	△김경수 63
◆GLP △노재기 09	△김경호 14	△김도연 99
◆AFP △김봉영 22	△김종석 51	△김진기 07
◆ABKI △이상배 05	△윤한나 14	△이강식 67
◆FNP △노상명 12	△이도희 21	△이동욱 04
◆AIC △김영식 29	△이성규 57	△이윤상 08
연회비-일반		
◆인문대 △강휘걸 17	△고영현 14	
△권은아 91	△노성철 94	△박은경 02
△박형준 06	△봉성용 12	△손우영 94
△최진수 16	△한상희 83	
◆사회대 △권용발 74	△김병수 12	
△배관성 98	△안윤아 13	△유지호 07
△윤영찬 83	△이수경 09	△이예진 11
△임태형 10	△주명훈 90	△최규진 17
△홍성현 13		
◆자연대 △김도균 85	△김용주 01	
△김한성 15	△신호정 15	△오희경 99
△이충기 07	△임동규 09	△정종기 81
◆간호대 △김주희 86	△여지영 14	
◆경영대 △강정영 98	△김관재 93	
△문지은 13	△조승호 81	△황석현 14
◆공대 △강 석 93	△김관섭 17	
△김유단 79	△박광일 12	△박기호 77
△박재홍 97	△배수빈 08	△서승호 15
△신동환 16	△신호섭 92	△연명홍 83
△유찬수 78	△윤창기 09	△이성경 08
△이소연 00	△이지환 11	△전복현 58
△정성호 10	△정용근 85	△조영총 59
△조유근 67	△지동관 86	△최동진 01
△최명경 65	△최해천 81	△허 정 21
△황용석 79		
◆농생대 △김민근 81	△김영규 51	
△김용하 79	△박준호 83	△신경희 85
△심경보 58	△우우일 64	△이양섭 72
△한홍희 77	△황용진 56	△김현호 84
△서학수 97	△심경정 88	△유동훈 90
△이은진 99	△정선웅 06	△홍인표 08
◆문리대 △김동욱 65	△송승원 61	
△이상근 55	△정춘수 67	△최윤현 61
△최창섭 61		
◆미대 △김민영 04	△최속경 59	
◆법대 △권 현 96	△김의창 90	
△김종현 03	△김중곤 60	△김택수 55
△백영철 68	△오민석 88	△이상철 79

총커밍데이 후원금 2023.8.24.-9.23.	
100만원	
△이부섭 공대56	관악경제인회장
△윤세영 법대56	고문
50만원	
△금지호 법대50	고문
△반기문 문리대63	고문
△이대순 법과대53	고문
△이준용 상과대56	고문
△조완규 공과대48	고문
△홍성대 문리대57	고문
△강인규 수의대59	자문위원
△이창원 법과대55	자문위원
△황해근 공과대54	자문위원
△김인규 문리대69	수석부회장
△박용만 경영대72	상임부회장
△정홍시 공과대73	상임부회장
△강용현 법과대71	상임부회장
△윤세리 법과대72	상임부회장
△이혜숙 사범대68	상임부회장
△문대원 상과대71	상임부회장
△신창재 의과대72	상임부회장
△류진 인문대78	부회장
△김상범 경영대78	부회장
△유상부 공과대60	부회장
△정진섭 공과대75	부회장
△이규석 사범대66	부회장
△박수경 생활대84	부회장
△최규팔 약학대70	부회장
△정태봉 음악대72	부회장
△장중환 의과대69	부회장
△정상철 치과대82	부회장
△김광선 FNP10	동창회장
△조윤숙 약대83	총신이사
30만원	
△성해경 경영대93	총신이사
20만원	
△천경희 HPM40	총신이사
△김영호 공대78	총신이사
△우종호 문리대60	총신이사
△이경재 문리대59	총신이사
△변영일 상과대61	총신이사
△이종구 음악대65	총신이사
△서우택 ASP23	이사
△박삼서 공대70	총신일반

△최연석 사회대96	총신일반	
11만원		
△이기태 사대59	총신이사	
10만원		
◆인문대 △구상본 78	△김매리 07	
△김정동 73	△김정호 90	△배도운 79
△송규현 81	△신연호 74	△양두석 69
△윤용복 84	△이명관 81	△이상원 87
△이호준 12	△이홍우 82	△전원배 73
△조희태 83	△차건희 80	△최영준 94
◆사회대 △김창균 80	△김태식 78	
△노정석 87	△문병성 74	△부형권 89
△성은식 76	△신태용 00	△오기두 82
△이민아 04	△이승우 72	△이주호 79
△정주성 03	△정준표 75	△최광해 74
△최지성 71	△하준대 84	△한건표 76
△한형중 81		
◆자연대 △고광일 94	△김민호 84	
△김성현 80	△김영삼 91	△백경수 74
△성영근 75	△신용억 72	△이재환 17
△전용범 81	△정 황 72	△최민아 03
△하상용 82		
◆간호대 △오희선 94	△이경희 76	
△이범숙 76	△정명자 57	△한경자 63
△홍미나 78	△홍머신 51	
◆경영대 △강성민 94	△김광일 84	
△김용철 83	△나석환 94	△배진우 01
△배해준 06	△성태홍 83	△신선호 72
△안병준 92	△임태희 76	△장영준 81
△최 수 71	△최희영 89	△최진원 85
◆공대 △강남식 73	△강부건 62	
△강인권 72	△강창훈 74	△강총원 59
△강행언 61	△강현식 64	△강호중 67
△경세호 53	△고광일 00	△고석원 54
△구경현 77	△구양현 79	△국천표 60
△권오석 60	△김광진 70	△김광준 72
△김교범 98	△김국호 65	△김대모 61
△김대식 73	△김동철 54	△김명년 53
△김명린 61	△김문정 90	△김병주 59
△김성년 68	△김성인 71	△김성태 90
△김신원 64	△김안순 54	△김용백 61
△김용철 58	△김원태 66	△김익홍 67
△김재동 70	△김정우 56	△김정현 08
△김종택 74	△김주용 58	△김준언 71
△김진원 68	△김진일 71	△김찬욱 55
△김철우 87	△김충남 62	△김한철 74

△김형진 51	△남복규 72	△남상훈 00
△남원창 99	△남정현 57	△노규환 55
△동상권 03	△문동민 57	△문명국 73
△문선영 10	△문인기 57	△문재길 52
△박관호 83	△박성준 90	△박승규 69
△박신구 64	△박여중 62	△박재범 84
△박정준 93	△박찬빈 60	△배승환 54
△백상목 60	△백승욱 58	△변세중 93
△설희순 62	△성영찬 56	△손명기 72
△송배원 75	△송인행 76	△송주철 56
△신우성 76	△심우갑 64	△심형윤 52
△안수호 09	△안홍성 75	△양홍준 65
△어 당 68	△여성중 67	△여운관 53
△오서균 63	△오영택 08	△오지남 67
△우남용 59	△우상선 68	△유동림 68
△윤병화 58	△윤일권 90	△윤혜림 87
△이광우 73	△이광진 69	△이기균 87
△이명선 55	△이병호 63	△이봉환 73
△이상호 66	△이순종 53	△이승준 56
△이용우 64	△이윤용 56	△이익용 55
△이일백 61	△이재운 74	△이재철 77
△이정인 59	△이주희 52	△이중성 61
△이지훈 86	△이창룡 61	△이태수 77
△임갑혁 69	△임강원 62	△임우현 61
△임종영 50	△장기욱 53	△장봉석 88
△장진양 67	△전계욱 56	△전병대 68
△정기로 82	△정동욱 70	△정봉영 73
△정세학 77	△정영웅 93	△정용환 93
△정우식 80	△정인조 71	△정조섭 56
△정주열 73	△정주화 58	△정현일 60
△조병철 59	△주경애 01	△주영재 72
△최경준 63	△최성호 80	△최 연 68
△최재호 77	△최하경 79	△추지서 59
△한성섭 68	△하강현 81	△현희현 00
△홍성현 55	△홍해남 73	△홍현민 75
△황철수 62		
◆농생대 △권명구 68	△김삼국 51	
△김성훈 77	△김영각 49	△김영진 53
△김용구 57	△김정목 59	△김정환 62
△김종성 55	△김진석 69	△김진진 62
△김철순 76	△김택민 65	△김풍진 71
△김형중 69	△김홍진 65	△김희원 80
△류관희 63	△류기승 59	△류기형 53
△류혁근 65	△문동준 70	△문철명 60
△박관식 54	△박노황 86	△박윤근 55
△박창호 58	△박해자 60	△배성훈 61
△상창영 61	△서문원 74	△사승준 55
△서정근 59	△손해일 67	△송기연 55
△신경수 84	△우근석 55	△유동준 56
△유재영 58	△윤성원 72	△윤여두 67
△윤희진 63	△이경국 78	△이동선 73
△이병일 57	△이병현 59	△이영배 61
△이우진 64	△이정아 61	△이정호 71
△이현정 64	△이희석 57	△장길평 62
△장석원 58	△장창주 53	△정해각 55
△조철희 70	△최혜환 59	△한휘연 62
△황숙정 61	△황의연 82	△황현철 71
△목진만 02	△조영래 82	△진하영 89
△차근희 83		
◆문리대 △강신혁 66	△구자홍 56	
△권기욱 60	△권안도 71	△김강년 54
△김덕창 59	△김문수 59	△김병호 66
△김병휘 65	△김삼균 66	△김순태 56
△김영식 65	△김용년 54	△김용범 60
△김용연 56	△김일환 64	△김태수 62
△남궁연 52	△남기민 69	△남기홍 67
△문영모 60	△박건우 61	△박경배 56
△박병로 69	△박삼욱 68	△박영원 69
△박용욱 55	△박조준 53	△박종렬 67

고품격 태국 골프 여행

골프장, 호텔 등 전 일정 맞춤 진행

상담문의

010-4386-5527 (한국)
+66-93-138-1681(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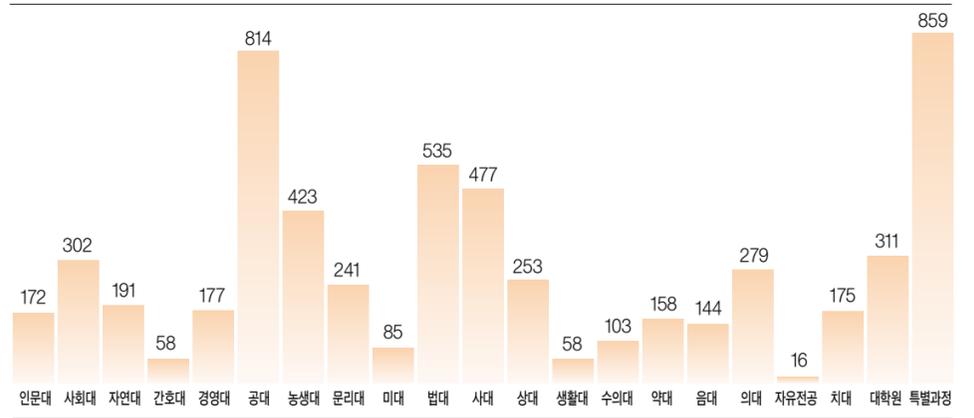
대표 : 성낙제 상대 44회
담당 : 김일형 부장

E-mail

△박종오 55	△서기림 56	△서태상 66	△이익환 64	△이정옥 58	△이재용 60	△김환규 69	△류지문 54	△박기복 53
△손봉호 57	△송세호 63	△오완영 59	△이주연 11	△이주옥 97	△이창배 57	△박도준 81	△박민영 95	△박성희 67
△이 결 69	△이근남 68	△이근무 56	△이춘구 54	△이호건 66	△임길선 83	△박정범 63	△박찬일 63	△박희옥 54
△이병철 56	△이사계 58	△이상현 62	△임창선 72	△임향순 60	△장재혁 80	△서동희 88	△서중배 85	△선우대할 71
△이성우 63	△이영준 67	△이원홍 52	△전병일 66	△정경희 80	△정근화 63	△성상철 67	△신희선 68	△심우석 59
△이인재 64	△이정우 57	△이창호 55	△정문성 72	△정의상 55	△정찬모 66	△양승열 51	△오연상 75	△유왕성 75
△이정자 59	△이종규 56	△장순근 65	△조경제 71	△조길준 56	△조도근 57	△유형래 54	△유형목 57	△육의근 86
△장정환 56	△전명애 62	△전준갑 64	△조승제 64	△조익래 57	△조진현 57	△윤용수 65	△윤원재 95	△윤정철 59
△정낙찬 69	△정순원 71	△조규일 61	△조해자 60	△최순옥 61	△하순봉 60	△이규향 54	△이기주 85	△이봉화 69
△조기용 66	△지현주 66	△차재익 00	△홍성오 50	△홍순복 57		△이상근 73	△이상용 64	△이순형 56
△차재호 52	△채영복 55	△최상재 66	◆상대	△강태석 51	△강대순 68	△이승규 67	△이정근 56	△이현재 14
△한광옥 60	△허영진 55	△형진우 67	△권계홍 58	△김경원 58	△김기천 57	△이희종 04	△장봉린 78	△장 영 91
△홍선경 63	△홍성관 63	△홍순길 61	△김기학 55	△김성두 56	△김성환 67	△전기평 06	△정문성 78	△정상일 88
△홍영남 60	△홍중용 65	△황경식 66	△김영수 58	△김한우 70	△김재철 60	△정을삼 60	△정의홍 75	△조광현 71
△황영숙 52	△황 찬 69	△황하복 56	△김정우 65	△김제심 51	△김종덕 55	△조두영 55	△주재식 77	△차우준 99
◆미대	△고문자 62	△김규봉 88	△김종호 54	△김진화 58	△문태근 64	△최경진 68	△최덕영 58	△최 윤 04
△김무기 83	△김소선 63	△김연수 76	△민병관 70	△박길상 68	△박순규 58	△최진수 64	△최희옥 51	△한동환 79
△김영우 50	△김영태 59	△김효숙 63	△박 승 55	△박영구 62	△박영순 60	△한중수 71	△허병열 60	△홍영식 61
△박경희 03	△박항을 70	△박향수 58	△박용이 57	△박향천 61	△박현두 58	△황규천 74	△황성남 69	△황준식 45
△산성식 54	△안영숙 67	△안종문 60	△박용기 67	△변찬의 63	△서의철 67	◆치대	△김경숙 57	△곽현희 68
△이강소 61	△이혜경 63	△장권봉 56	△서태식 58	△손한주 57	△손홍규 51	△김경옥 70	△김경중 72	△김명수 66
△전영철 53	△정광호 60	△한영옥 58	△심대평 60	△심재석 64	△심춘석 59	△김선용 63	△김승현 98	△김영일 79
△현용순 68	△황숙현 69		△심 훈 60	△안경태 71	△안재동 60	△김영환 57	△김오환 62	△김우철 69
◆과대	△강원일 59	△강현석 56	△안재천 56	△안태호 45	△여현동 56	△복성규 81	△박경진 63	△박종만 69
△곽동현 61	△김기형 50	△김대환 71	△원우식 52	△유병규 54	△유석기 57	△부삼환 58	△서정기 60	△신덕태 68
△김도선 60	△김동수 82	△김신혜 63	△이대연 59	△이두석 55	△이성태 64	△신명삼 86	△신현철 72	△안병근 62
△김영근 77	△김영기 54	△김영대 61	△이용우 61	△이중현 59	△이진방 67	△양문섭 78	△윤종일 04	△이석근 90
△김영수 60	△김영호 81	△김의재 56	△이철영 63	△이태용 65	△이향철 54	△이우전 02	△이순규 69	△이유현 90
△김의재 56	△김의창 90	△김인호 60	△임재수 51	△임조홍 60	△전용수 62	△이운상 59	△이윤희 87	△이은승 10
△김정일 60	△김종상 65	△김준영 99	△정계영 61	△정덕용 59	△정운진 63	△이진규 78	△이형규 57	△이희주 67
△나대진 67	△류유현 01	△목옥상 55	△정인승 46	△조문규 57	△조병해 53	△임성수 60	△임승찬 68	△임철중 61
△문상일 84	△문익상 58	△민경우 50	△진교원 60	△최광현 62	△표계영 58	△정모안 86	△정효수 58	△최규원 77
△박경재 62	△박성진 84	△박성철 75	△홍성주 58	△홍영기 57	△황동규 63	△최충우 76	△최준호 70	△홍상표 71
△박영삼 63	△박재윤 65	△박철근 55	◆생활대	△강 신 93	△송기철 95	△황시철 82		
△박형남 78	△배기열 82	△배석필 56	△이민선 02	△김명경 83	△김인주 85	◆대학원	△김도현 74	△김상호 79
△서정우 61	△성주형 58	△손우창 94	△노선숙 85	△안해준 77	△오경화 81	△김용철 92	△김철수 71	△박종열 71
△신찬민 60	△심정수 70	△안승국 76	△이유리 89	△정태숙 80	△최영선 71	△정상철 75	△정원박 74	
△안정호 86	△양영준 72	△여동영 60	◆수의대	△권순현 76	△김명중 59	◆경전원	△고인준 11	△류창승 11
△오시열 75	△오재성 82	△유 훈 49	△김인기 55	△류기승 60	△류인광 81	△신태용 16	△오승원 18	△윤석빈 11
△유홍수 58	△윤광성 84	△윤준진 67	△박성수 06	△송기준 59	△윤석순 59	△장 옥 09	△조주일 12	△한승수 16
△이경화 04	△이광렬 66	△이대공 60	△윤화중 54	△임경택 00	△장인옥 55	◆경대원	△김선대 00	△한기룡 71
△이두아 89	△이병기 58	△이병수 57	△정운섭 55	△최규창 56	△최성호 57	△허희영 87	△홍소영 96	
△이영덕 69	△이영범 59	△이정복 76	△최윤석 52			◆교대원	△최상범 72	
△이홍신 63	△이천수 61	△임덕규 73	◆약대	△강해석 71	△권 박 61	◆보대원	△박대근 63	△박명운 74
△임태유 59	△장백규 78	△전병관 84	△권현희 61	△김경림 62	△김양근 51	△박창진 70	△서은하 96	△여현태 65
△전수안 71	△전완수 85	△정병섭 56	△김우영 67	△김정호 65	△김진우 54	△전금자 72	△정상호 99	
△정선명 85	△정영진 84	△정용인 60	△김진훈 71	△김춘수 72	△김홍중 53	◆사대원	△김영준 70	△이원성 67
△정홍화 81	△조남걸 53	△이대공 69	△김홍집 57	△나도선 67	△문원호 65	◆신대원	△유일언 72	△황영일 70
△조동원 54	△조용준 79	△차동민 77	△박상욱 72	△박수일 65	△박종길 71	◆행대원	△김주현 92	△김준봉 79
△최동원 64	△최연석 98	△최연희 64	△유 영 51	△윤도중 58	△이광식 66	△김 탁 20	△박범재 66	△박찬도 64
△최영일 59	△최재경 81	△최재형 75	△이규호 60	△이용선 50	△이윤연 72	△송 학 01	△이강두 71	△이두현 74
△한창은 59	△허 인 80	△황길수 59	△이원희 68	△이은방 55	△이춘희 65	△최석식 81		
△황용하 94	△황진구 88	△황형모 71	△이태승 77	△이형규 74	△장석윤 79	◆환대원	△강재훈 96	△김제성 78
◆사대	△강규석 58	△공규영 54	△장숙희 70	△정인조 51	△조윤숙 83	△신만규 83		
△곽병선 66	△구성희 55	△김교정 54	△최성욱 95	△최윤환 56	△최해원 67	◆AMP	△강봉희 36	△곽상업 34
△김동길 57	△김병국 59	△김억관 67	△한규홍 64	△한병련 68	△한병현 77	△권영선 03	△김광석 38	△김기용 15
△김연식 51	△김영희 68	△김일병 65	△허 백 50			△김동문 41	△김봉규 20	△김수환 15
△김정희 84	△김지자 59	△김지호 18	◆음대	△고순자 52	△김금수 76	△김준식 91	△김치형 58	△김해삼 51
△김종현 54	△김학천 59	△김혜원 56	△김 석 56	△김순옥 73	△김옥숙 58	△류영하 46	△민경서 48	△민상기 25
△김희영 57	△류목기 54	△민병문 52	△김효순 61	△문혜신 94	△설영아 75	△민영복 42	△박근학 51	△박병익 20
△박경서 66	△박동규 94	△박승용 76	△신대철 69	△오진희 80	△유일영 14	△박성근 55	△박영준 66	△박태하 01
△박양수 55	△박영오 66	△박정남 57	△이영자 56	△임재원 76	△장해실 69	△송언기 28	△송준달 46	△신우식 24
△박종국 67	△방정애 56	△배호순 67	△정화자 60	△조영남 64	△진주은 95	△안상태 46	△안창엽 68	△양시백 44
△봉정모 72	△성해경 53	△손은호 08	△최윤규 66	△표신미 83	△한순심 73	△애송유 79	△유병문 23	△유충용 31
△송동수 67	△송선영 00	△양대배 61	△한형실 77			△윤영돈 92	△이근재 17	△이방수 37
△오건주 76	△오성종 58	△유희임 68	◆의대	△강상호 95	△강신일 58	△이병만 90	△이순규 63	△이승로 84
△윤석오 00	△윤선진 70	△윤용혁 60	△강진영 67	△김경환 86	△김규상 69	△이시용 31	△이중아 37	△임경태 84
△이강식 67	△이범지 61	△이병호 70	△김기탁 68	△김민석 91	△김윤호 88	△임도수 20	△장익상 25	△장호성 69
△이승원 73	△이영자 56	△이의숙 56	△김주현 65	△김지현 89	△김태규 00			

2023년 단대별 누적 회비납부현황

총 5831명 *9월 23일 현재



△전현찬 44	△정준명 58	△정진규 17	◆FIP	△이상인 17	△이한석 07
△조달호 07	△조용호 41	△조현욱 82	△장세영 08		
△채창원 65	△한용외 39	△황호연 36	◆GLP	△강구원 33	△김달수 32
◆AIP	△고상연 11	△김길산 32	△김명자 13	△김병철 17	△김운성 35
△김대원 48	△김상모 07	△김길근 53	△김은호 25	△김익환 20	△김종운 39
△김용석 25	△김윤필 32	△문세웅 42	△나기용 10	△박종춘 13	△신우식 17
△문필복 61	△박소환 46	△박승욱 21	△오병석 20	△오원복 25	△오윤석 16
△박영기 29	△박한창 17	△송기숙 23	△이석성 06	△이영식 20	△이용문 17
△신정승 32	△안병수 09	△유길상 09	△이정우 13	△이창근 32	△이창목 07
△이대안 24	△이중대 06	△이준오 24	△이현규 40	△이현식 33	△이호영 36
△이창규 11	△전준선 34	△정봉성 29	△임병선 14	△정무광 32	△정재교 34
△차정용 18	△최경하 07	△최창식 11	△채영신 30	△최재영 19	△홍민희 25
△현정원 19	△홍기호 40		△홍재희 20		
◆ACAD	△권정신 02	△권희경 57	◆ALP	△김인숙 16	△서일성 06
△김기봉 50	△김기영 49	△김영성 43	△송준영 05	△안종만 03	△양준호 11
△김중용 39	△김충한 18	△김태영 29	△송덕근 16	△최종천 16	
△김태환 44	△노정기 36	△노희찬 33	◆SPARC	△김삼중 13	△김승환 20
△박명규 40	△박영순 43	△배병찬 72	△김규경 02	△마재호 40	△박노현 15
△오혁근 44	△유홍렬 36	△장해익 34	△박상학 12	△박창열 13	△배두식 12
△정영만 71	△정이조 48	△정종모 25	△배인열 13	△석종호 19	△황용규 15
△지난식 51	△진재철 45	△최중욱 20	◆AFP	△김영복 19	△박대영 24
△황갑주 48			△신상홍 09	△최동주 04	△한순구 10
			△황재철 09		
◆ABP	△이삼희 20	△이판철 03	◆ASP	△박재준 04	△안우환 28
◆SGS	△구용호 18	△권학실 31	△이동호 06	△허 중 30	
△문길주 36	△박남식 02	△신양철 21	◆IFP	△박영욱 06	△유성민 11
△이원식 10	△임인호 03	△정홍섭 32	◆BCP	△강인기 03	△백낙영 05
△정규형 15	△조성태 02	△조진형 31	◆ABKI	△김경일 05	△김병준 08
△한영숙 33	△허성호 26		△김순태 06	△김윤홍 09	△문종중 08
◆APC	△김철수 06	△류승현 19	△박남팔 10	△신재서 05	△안병숙 10
△윤규한 09	△윤종아 09		△윤세진 12	△이영애 09	△이형규 06
◆HFM	△김우석 13	△김광하 09	△임해수 04	△최영만 03	△최은철 03
△김능환 31	△김 석 42	△김성기 37	◆FNP	△김진철 03	△백경순 07
△김재영 18	△김정자 20	△김진삼 01	△안필규 13	△이수혁 06	△임희문 01
△방금석 02	△부영욱 13	△양동근 12	△정종각 07	△조흥연 07	△최영일 09
△양승권 07	△윤원진 06	△이광우 05	◆AWASB	△김수원 01	△김재호 08
△이은정 14	△정원호 36	△조준성 12	△박경동 03	△심승호 01	△이대현 02
△조이만 29	△주범모 02	△주인재 30	△이승권 03	△한치영 02	
△최승용 09	△최정봉 11	△최창욱 14	◆AIC	△강태석 36	△권대영 01
△한상용 42			△김용원 03	△문현일 06	△박정실 48
◆AMPP	△박경조 12		△이은대 05	△이정재 02	△조경연 30
◆AFB	△곽영철 14	△김명환 20			

진리는 나의 빛(VERITAS LUX MEA)

추억의 창



김 호
법학07-11
시사법 칼럼니스트

‘VERITAS LUX MEA(진리는 나의 빛)’ 필자가 서울대를 다니던 시절 항상 머릿속을 맴돌던 저 문구가 불혹의 나이인 지금도 인생 표어로 자리잡을 것 이라고는 재학 시절엔 생각하지 못했다. 당시 서울대 교정 어디를 가도 그랬었고 학생들과 교수님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열정과 노력은 필자로 하여금 서울대라는 존재가 비단 대학이라는 차원을 넘어 개인으로서의 인생을, 조직으로서의 목표를, 국가와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영구적 지향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스스로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필자의 경우 서울대를 다니며 같은 대학 동문을 만나 배우자로서 인연을 맺고 인생을 함께 하는 기회(필자의 아내는 2년 선배 강연에 동문으로, 아내도 서울대 법과대학 시절 함께 수업

을 들으며 인연을 맺어오다 필자가 청혼한 바 있다)를 가졌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서울대는 필자에게 인생의 동반자까지 주선한 가족과 같은 존재라고 하겠다.

여담으로 그때를 돌아해보면 아내를 처음 알게 된 것도 수업시간이었는데, 당시 어렵기로 유명했던 물리법(대법관 역임 양창수 교수님) 시간에 교수님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는 중에도 곧잘 답변을 하던 아내의 모습에 필자는 처음엔 감탄사를 연발하다 나중에 경외심마저 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이후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결코 선택하기 쉽지 않았던 신동운 교수의 형법, 형사소송법 수업까지 연이어 수강신청을 했는데, 함께 수업을 들었음에도 중간, 기말고사 성적은 늘 아내가 월등하였던 것에 경쟁심리가 작용했고 더욱 아내를 이겨보려 열심히 수업에 집중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지만 당시만 해도 아내와의 경쟁에 관한 열정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던 것 같다. 어찌되었건 이런 배경을 인연으로 결혼해 아이까지 낳아 한 가족을 이루었으니 서울대 수업에



일러스트 김나은(디자인 4학년) 재학생

대한 기억은 단순히 지식을 충족시키는 것에 나아가 인생을 바꾸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이처럼 서울대 모토인 ‘VERITAS LUX MEA’는 아내에게도 그렇지만 칼럼니스트로서 삶을 살아가는 필자에게도 수많은 글과 책을 통해 독자들에게 ‘진리를 향한 빛’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열정의 원동력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

더욱이 세월이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범죄와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져가는 사회 분위기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주

변국과 긴장(전쟁과 테러위협, 경제마찰 증대)과 전엔 상상도 못했던 세계적 팬데믹(지금은 완화된 코로나 등), 기후와 환경문제 등으로 인한 국내외 분열 및 금융, 세대, 교육, 이념에 관한 국민 갈등심화로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와 미래세대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VERITAS LUX MEA’의 중요성과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어둠에서 길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는 시대에서 필자는 ‘VERITAS LUX MEA’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즉, 학교에서 배움의 바탕이 되었던 ‘진리’를 통해 작금의 혼란스런 시대상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해 ‘진리의 빛’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필자를 포함한 우리가 서울대에서 얻게 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지표라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학교시절 마음 속에 품고 있던 대표적 표지인 ‘VERITAS LUX MEA’를 잠시나마 회고하며 짧은 소회를 마치고자 한다. 그리고 어느 시대나 어둠은 존재해왔지만 결국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빛’을 향한다면 종교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다. 오늘도 필자는 서울대 모토를 마음 속으로 외쳐본다! ‘VERITAS LUX MEA’!

*김 동문은 모교 졸업 후 동국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작가지자 사단법인 21세기 군사연구소에서 군법제 진단 분야 칼럼니스트로서 활동하며 군법과 수사절차 관련 칼럼을 썼다. 주요 저서로 ‘군 수사절차의 이해’, ‘법의학의 기본 이해’, ‘군사법의 이해’, ‘디지털시대의 법적분쟁’ 등이 있다.

과학·공학 10가지 도전적 질문

집적회로 기술로 양자컴퓨팅을 구현할 수 있을까

박제근 (물리84-88) 모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김도현 모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양자컴퓨팅을 실용적으로 쓸 수 있으면 고전컴퓨터만큼 오류가 낮아야 한다. 큐비트의 조작가능성과 계산의 신뢰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반도체 집적회로 분야에서 축적된 한국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집적회로 기반의 양자컴퓨팅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일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비트를 통해 정보를 한순간에 0과 1로만 표현할 수 있고 순차적인 연산만 가능하다. 이와 달리 양자컴퓨터는 양자 수준에서 나타나는 상태의 중첩을 이용함으로써 처리하는 정보의 양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며 양자 얽힘 현상을 통해 병렬 연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이론적 장점을 바탕으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개념이 제안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 기술을 개발해왔다. 하지만 현재의 양자컴퓨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고전 컴퓨터보다 오류 발생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현된 양자컴퓨터는 실용적이지 못하며 대규모의 계산을 수행하기 역부족이다.

현재의 양자컴퓨터는 실용성이 낮기 때문에 “양자컴퓨터를 어떤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고, 동시에 “어떻게 하면 오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실용적인 양자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인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고전 컴퓨터의 오류 발생 확률은 약 10⁻¹⁶ 수준이다. 그러나 양자컴퓨터는 구동 원리의 고유의(intrinsic) 오류 확률이 양자컴퓨터 분야의 선도 플랫폼의 경우에도 약 10⁻⁴, 즉 1만 번의 논리 연산에서 1번 폴로 오류가 나는 수준이라 실용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양자를 조작하고 측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조작과 측정을 위해서 상호작용이 필수적인데, 상호작용을 잘 할수록 외부의 영향을 받아 오류 확률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하는 오류를 적절한 수준에서 보정하는 방식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적용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오류 보정을 위해서는 각 큐비트가 일정 수준 이상의 오류 확률이라는 충실도(fidelity)의 문턱값을 넘어야 한다. 따라서 양자컴퓨터를 실용적으로 쓰기 위한 오류를 보정하는 방법의 연구와 동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충실도를 가진 큐비트를 충분히 만든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난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류 보정을 위해 양자 상태 여러 개에 정보를 쓰고 체크하는 ‘오류 신드롬 측정-고속 피드백’ 방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양자 상태를 보면 안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교 대상인 양자의 결과와 비교하여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중점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 외 대안적으로 연구 중인 여러 가지 오류 보정 방법들은 초전도, 이온 트랩, 반도체 등 회

모교 국가미래전략원의 ‘과학과 기술의 미래 클러스터’(클러스터장 이정동)에서 최근 ‘2023 Grand Quests’ 10개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동 클러스터장은 “도전적 질문(Grand Quest)이 진정한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10개의 도전적 질문을 통해 최신 과학·공학의 이슈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신문에서 10회에 걸쳐 그 내용을 전합니다. -편집자 주

Grand Quests 연재 순서

1. 집적회로기반 양자컴퓨팅
2. 프라이버시 기반 인공지능
3. 효소모방 촉매
4. 추론하는 인공지능
5. 체화 인지구조 인공지능
6. 인공지능 기반 항체설계
7. 노화의 과학
8. 초미세/초저전력 반도체
9. 환경적응적 로봇
10. 초경량 배터리

로 기반 양자컴퓨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오류 보정 방법이 개발된다고 전제했을 때, 남은 문제는 “오류 보정을 적용할 수 있는 충실도가 높으면서 결맞음 시간(coherence time)에 비해 고속으로 측정이 가능한 대규모 큐비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양자컴퓨터 플랫폼에 대한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

양자컴퓨터 플랫폼 분야에서는 현재 초전도와 이온 트랩을 사용한 방식이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초전도의 경우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가장 오랫동안 연구되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축적된 연구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큐비트의 규모 확장성(scalability)을 큰 장점으로 갖는다. 하지만 초전도는 온도 변화에 취약하고, 큐비트의 상태가 완화되는 시간인 T1 시간(T1 time)이 비교적 짧은 단점이 있다. 반면 이온 트랩 방식은 현재 연구 중인 방식 중 충실도가 가장 높고, 임의의 큐비트 쌍을 자유롭게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덩치가 큰 금속 블레이드를 이용한 이온 포획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큐비트 개수를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반해 반도체 스핀 큐비트 기반의 실리콘 양자컴퓨터의 개념이 제안되었으나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초전도나 이온 트랩보다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큐비트는 초전도 방식에 비해 온도에 덜 민감하고, 제어회로와 큐비트를 하나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규모 확장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원하는 위치에 스핀을 포획하기 위한 초기 튜닝을 매 실험마다 큐비트 각각에 대하여 교정해 주어야 하는 단점도 함께 존재한다.

오늘날 전자회로 및 반도체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 대안적 양자 플랫폼들을 모두 집적회로에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다. 초전도 큐비트와 반도체 스핀 큐비트는 이미 반도체 공정법을 이용해 제작되고 있으며, 큐비트 집적화를 목표로 반도체 파운드리 스타트업 기업도 설립되고 있다. 이온 트랩 방식 역시 집적회로의 표면전극을 이용하고 초고진공 챔버를 손바닥 크기의 초소형으로 제작하는 등, 집적된 형태로 제작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플랫폼들은 공통적으로 회로 기반 양자컴퓨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류 보정 방식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스핀 큐비트는 트랜지스터와 큐비트의 구조가 유사하다는 특성이 있어 반도체 관련 기술과 제조기반이 매우 잘 갖추어져 있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대안이다.

현재 수준의 양자컴퓨터 분야는 제안된 개념을 실제 구현해 보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상용화되었을 때 어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게 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또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독자적인 추진이 어려운 거대한 분야라는 특성으로 다양한 참여 주체 사이의 협력이 필요한 연구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만약 우리나라가 집적회로 기반의 양자컴퓨터 기술을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고 선점하게 될 경우, 협력적 기술 개발 측면에서 독자적인 협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양자컴퓨터 시장이 형성되고 성장한다면 국내에 큐비트 칩 파운드리를 조성하는 등 추가적인 가치창출 기회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관악논단

중국·러시아 등저선 한반도 비핵 평화 구축 곤란



위성락
외교73-77
리셋코리아외교안보분과장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9월 13일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 기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두 정상은 회담과 연회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과시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두 정상의 말 그대로 전략적 협력 관계가 됐다.

원래 북러 관계는 전략적 협력 관계로 격상될 만큼 양국 간 협력 실적이 축적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이란 공동 위협이 한국, 일본과 연합해 아시아에서 그 세를 공고히 하는 것을 보고, 연대를 서둘렀음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로써 한러 간 전략적 파트너십은 지고, 북러 간 전략적 파트너십이 뜨게 됐다. 한러가 오랫동안 가꿔왔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북러로 넘어갔다. 한국과 러시아 간의 우주, 방산 협력은 끝나고 이 사업이 그대로 북러 간에 전개될 판이다. 이미 최저점에 이른 한러 관계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속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가장 우려되는 게 북러 간의 무기 거래와 군사, 우주 기술 협력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면서 특정 위성 기술만 이전한 건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러시아가 첨단 핵 미사일 관련 기술까지 북한에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예전부터 러시아는 핵과 미사일 기술의 비확산 국제 조약에 대해서는 충실히 임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돌발 행동이 많아져 기술 이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북러 정상회담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 사이가 틀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중국을 활용하지는 의견도 나오는데, 이는 아전인수식 해석이다.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의 관점엔 다름이 없지 않으나, 미국이란 공동의 적을 상대로 최고 수준의 연대를 구축해왔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중국은 현 상황을 나쁘지 않게 본다. 중국과 러시아의 최우선순위는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지역 안보 패권에 도전하는 것이다. 중러 관계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좋다. 러시아가 먼저 북한과의 협력 강화를 시작했을 뿐 북중 관계도 북러 관계와 비슷하게 흘러갈 개연성이 더 높다. 북러 협력이 견제심리를 발동시켜 중러 연대를 상치할 가능성은 적다. 최근 중국이 러시아

북러 회담, 한미일 협력 반작용

한, 미중러에 통합대응 전략 세워야

의 세력권인 중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높였을 때도 중러 연대엔 별 지장이 없었다.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지도, 무기 지원도 하지 않았지만, 중러 연대는 약해지지 않았다.

장차 북한이 중국 무기를 사들여 러시아에 되파는 중개 무역도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북한이 러시아 무기 공급의 숙주가 되는 건데, 북한도 이득이 되는 장사다. 북한이 동의한다면,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항한 북중러 군사 훈련도 불가능하지 않다.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로써 북러 관계는 극적으로 격상됐고, 한러 관계엔 적신호가 켜졌다. 북핵 문제를 국제 협력으로 풀기도 어려워졌다.

그런데도 우리가 북러 협력의 잠재력을 경시하고 가능성이 희박한 중러 간 틈새 활용에 기대를 건다면 우리의 외교 대응에 중대한 착오가 생길 수 있다.

한중 관계마저 최저점에 있는 상황에서 어설픈 틈새 전략은 러시아의 반작용과 한러 관계의 추가 악화만 초래할 수 있다. 중러가 연대를 지속하며 향후 북중 협력도 더 커질 것이라 전제하에서 대처방안을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한미일 공조는 불가피하게 한러, 한중 갈등이란 기회비용을 유발한다. 한미일 협력의 시대와 동시에 북중러와의 대립의 시대가 열린 셈이다. 중국, 러시아를 등지고서는 우리의 더 중요한 외교 안보 과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민족통일의 추구는 더 멀어진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당장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변별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중국 및 러시아와 대중적으로 치고받음으로써 관계를 계속 악화시키는 일이다. 이런 식이면 외교의 공간이 사라진다. 냉전 시기에도 미국과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 일정한 외교 관계를 갖고 있었던 걸 기억해야 한다. 그에 반해 한국은 미국 진영의 최전선 국가였으며,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가 부재 상태였다. 그 결과 한국은 냉전 내내 어느 나라보다 더 분단, 긴장, 대립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신냉전 시대에 한국이 그러한 상황으로 회귀해선 안 된다.

해야 할 일은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해 통합 조율된 대응전략을 세우는 일이다. 미중, 미러 대립 구도 속에서 운신하는 우리가 각각 별개의 대미, 대중, 대러 정책을 펼 수 없다. 그 전략속에는 미중 사이에서 운신할 ‘한국형 전략 좌표’가 내장돼야 한다. 일본을 보면, 지금 상황에서도 기시다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말한다. 자국민 납치라는 일본만의 대북 의제가 있기에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미국이 내심 내키진 않더라도 나서서 반대하진 못한다. 상반되고 상충하는 목표를 조화시키는 게 외교다.

심플 미묘한 사제관계 ‘아카데미 프렌드십’



교직원의 소리
김태영
대학원08-10
모교 정치외교학부 강사

한 학기 강의의 시작할 때면 수강생들과의 만남이 지나는 농도와 밀도를 생각해본다. 가령 3학점짜리 교양 과목을 맡아 15주 정도의 강의를 진행한다면 대략 45시간의 만남이 보장(?)된다. 일수로 치면 이틀 정도를 함께 지내는 셈이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만남이다.

하지만 빈도를 따지자면, 만남의 무게감이 달라진다. 3개월 동안 같은 시각, 같은 공간에서 매주 만나 두세 시간을 함께 하는 셈이니 결코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만남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수십년지기 초등학교 동창도 일 년에 고

작한두 번 만나지 않나.

더구나 학생들과의 만남은 꽤 입체적이다. 그들의 얼굴을 만나고, 말을 만나며, 심지어 수 페이지에 달하는 리포트 과제를 통해 그들의 글을 만난다.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 청년의 자살, 비혼과 출산을 저하와 같은 자못 심오한 사회 문제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말과 글로 주고받는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나는 내 아내에게(아내 또한 나에게) 2000자가 넘는 긴 편지를 받아 본 적이 없다.

어느 학생의 은밀한 프라이버시를 알게 될 때도 있다. 자신의 심각한 만성질환이 악화되어 출석을 못하게 되었다며 조심스레 건강진단서를 내밀고는 조금은 축스럽게 웃는다. 비밀을 지켜달라는 의미 아닐까.

종강 이후 수개월이 지나 그 학생을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순간 조금은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한다. 분명 내 수업을 들었던 학생인데, 비밀까지 공유했던 사이인지라 내심 반갑기는 한데, 이 친구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 그 학생도 나에게 인사를 할까 말까 잠시 난감해 한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다. 이 선생님이 나를 기억하기는 할까, 내가 인사를 했는데 몰라보는 건 아닐까. 혹시 내 비밀을 아직도 기억하는 건 아닐까.

이럴 땐 그저 그에게 옅은 미소를 보낸다. 그제서야 학생도 살짝 목례를 보낸다. 건강은 좀 나아졌냐고 묻고 싶지만 참는다. 별다른 인사말을 건네진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수업에서 재회하기를 내심 기대해본다. 나는 이런 심플 미묘한(?) 사제 관계를 아카데미 프렌드십이라 정의해 본다.

만평

이원복
건축66인
덕성여대 명예교수



느티나무칼럼

언론의 위기와 서울대의 책임



김희원
인류89-93
한국일보
뉴스센터다드실장
본지 논설위원

9월 총동창회보에서 윤석민 모교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관악논단 ‘저속련 뉴스노동자로 내몰리는 언론인들’을 의미심장하게 읽었다. 우선 윤 교수가 지적한 언론의 현실은, 부끄럽지만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대중은 언론을 신뢰하지 않고, 언론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존재라는 자각이 흐려지고 월급쟁이 정체성에 사로잡힌 듯 한 기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다.

완벽하진 않아도 제 몫 하는 언론 모교 저널리즘 스쿨에 관심을

안타까운 것은 언론의 위기가 곧 우리 모두의 위기라는 인식이 드물다는 점이다. 너희 언론이 잘못했으니 불신받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거나, 더 이상 뉴스를 보지 않고 SNS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이들도 있다. 글을 시작하며 언론의 문제를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언론을 그저 없애져도 좋을 존재로 여길 수는 없다. SNS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포함해 결국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정치와 정책 등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언론이 생산해 낸 것이다. 그에 대한 불신과 혐오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로, 나아가 견제와 관여로 지탱돼야 할 민주주의를 흔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제도의 공백, 사회적 위험, 권력 남용에 언론

이 무관심할 때 우리 삶이 피폐해지는 것이다.

언론은 완벽하지 않지만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민들이 인식하기를 바란다. 또한 시민들이 이념적 지향과 별개로 언론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은 위험하다는 경각심을 갖기를 바란다. 어떤 정권이든 언론을 내 편으로 만들려 하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가짜 뉴스’라는 이름으로 언론을 싸잡아 비난하고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의 기반을 위협하고 수사와 압수수색으로 보도를 위축시키는 게 온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6년간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일궈온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SNU팩트체크센터에 네이버가 지원을 끊고 콘텐츠 제공을 중단기로 한 것에 서울대 구성원과 동문들이 관심을 쏟아야 마땅하다. 같은 맥락에

서, 윤 교수가 좋은 저널리즘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널리즘 스쿨을 설립하자며 “서울대에 주어지는 특혜가 아닌 서울대가 져야 할 책임이다”라고 말한 대목에 백번 공감한다. 사실 정치양극화와 맞물린 언론의 정당성 심화가 저널리즘 구현을 방해하는 중요한 한 원인이지 교육적 노력 외에도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어쨌거나 언론의 실패를 바로잡는 시도를 위해 서울대 같은 권위 있는 기관의 책임의식, 다수 시민들의 관심과 압박이 필요하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언론을 위기에서 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구하는 데에 모교와 동문들의 관심을 고대한다.

서울대 총동창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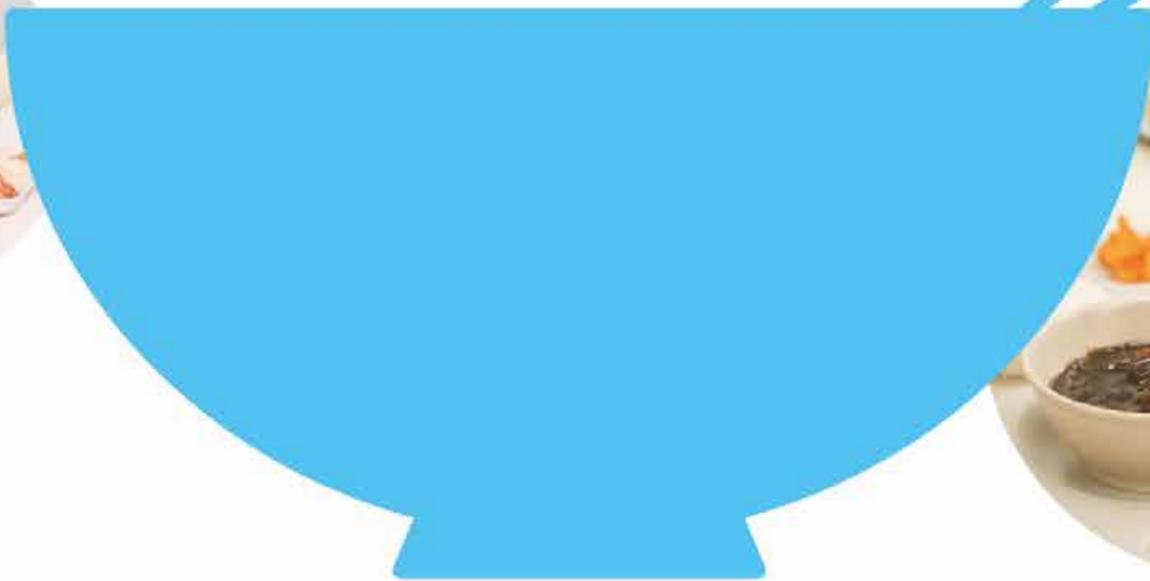
발행인 김중섭	편집인 이경형	편집장 김남주	기자 나경태·박수진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이메일 news@snu.ac.kr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편집디자인 Sac design		인쇄 중앙일보	
*칼럼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천원의 식사' 모금 사업은 학생들이 한 끼 1,000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식사를 해결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금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채우고
 내일을 채우는
 천원의*식사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940동) 2층
 TEL. 02. 871. 8004 FAX. 02. 872. 4149 Email. snuf@snu.ac.kr
 → 온라인 후원하기: snu.or.kr/1000won